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89期(2026.05.08) WWW.MINGHUI.ORG

한글판 1053호 minghui.or.kr



▲ 캐나다 애머스트버그시에 게양된 ‘파룬따파의 날 축하’ 깃발

주요 내용

【교 류】 중공 사법 박해 부정, 대법이 근본이고 법률은 보조

【해 외】 ‘전법륜’과 맺은 평생의 인연

【교 류】 반드시 법공부 장소와 자료점 안전에 주의하길 바란다

【평 론】 ‘자손의 앞날을 위해 전향한다’는 것은 누구를 해치는가?

〈목차〉

■ 해외종합

‘전법륜’과 맺은 평생의 인연	3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7

■ 중국소식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14
---------------------------------	----

■ 수련교류

중공 사법 박해 부정, 대법이 근본이고 법률은 보조	17
경찰의 스쿠터 위치추적기 부착에 대한 주의	22
드디어 심성을 수련할 줄 알게 되다	25
반드시 법공부 장소와 자료점 안전에 주의하길 바란다	29
대법제자의 원고에서 오자·탈자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33
명혜망 뉴스 보도 및 편집 실무 매뉴얼(1)	39
편집과 통신원 업무에서 자신을 수련하다	43
27년 반(反)박해의 일부 사회적 효과를 통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생각하다	54

■ 시사평론

‘자손의 앞날을 위해 전향한다’는 것은 누구를 해치는가?	65
---------------------------------------	----

■ 문화예술

‘당문화(黨文化)’에 대해 말하다	72
--------------------------	----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법륜’과 맺은 평생의 인연

[명혜망](선릉 기자) 사람은 평생에 있어 어느 한순간 반드시 ‘생명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한다. 그러나 설령 이를 의식한다 해도 답은 종종 아득히 멀기만 하고 앞에는 여전히 길고 고독한 탐색의 길이 놓여 있다. 썩상푸(曾祥富) 역시 일찍이 이런 추구 속에서 다년간 방황했다.

1967년에 태어난 썩상푸는 어려서부터 성격이 신중하고 행동이 반듯했다. 자라서는 잡지사에서 일하기도 했고 학원을 운영하기도 하며 인생은 걸보기에 평온하고 질서가 있었다. 그러나 대학 시절 그의 마음속에는 늘 말로 다하기 어려운 어떤 원동력이 꿈틀거렸는데, 마치 어떤 힘이 끊임없이 그를 재촉하며 어떤 답을 찾게 하는 듯했다.

내면의 곤혹스러움을 풀기 위해 그는 중앙대학 수학과에서 중문과로 전과해 인문철학의 각도에서 생명의 방향을 찾기를 바랐다.

서점에서의 뜻밖의 만남

2001년 1월의 어느 날 33세의 썩상푸는 한 서점에 들어섰다.

눈부시게 다양한 책들이 가득한 서가 사이에서 그의 시선은 금빛 표지의 책 한 권에 이끌렸다. 바로 ‘전법륜(轉法輪)’이었다. 그는 책을 집어 몇 페이지를 넘겨보고 다시 제자리에 놓은 뒤 계속해서 다른 책을 찾았다. 그러나 결과는 뜻밖이었다. 원래 사려던 책은 한 권도 집지 않고 오히려 방금 내려놓았던 ‘전법륜’을 다시 집어 들었다.

서점 문 앞에 선 그는 손에 든 책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의혹과 놀라움이 가득했다. “저는 제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이 마치 무엇에 떠밀려 이뤄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그는 사흘에 걸쳐 ‘전법륜’ 전체를 다 읽었다.

그는 ‘진동’이라는 말로 당시의 느낌을 형용했다. 그것은 충격과 격동이 교차하는 체험이었다. “과거에 난해한 책을 많이 읽었지만 심오하다고 해서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법륜’은 다릅니다. 책에서 말하는 내용은 투철하고 명확합니다. 많은 부분은 제가 일찍이 생각했지만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문제들이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지극히 중요한 내용도 있습니다.”

심신의 변화: 체험에서 체득으로

‘전법륜’을 다 읽은 후 썩상푸는 지속해서 다른 경서를 읽기 시작했다. 어느새 그의 신체에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는 일찍이 장기간 심각한 치질에 시달려 새해 이후 수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 일이 생각났을 때 증상이 크게 완화돼 다시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저는 몸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나타났을 때 비로소 책에서 말한 것이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의식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가부좌 중의 체험도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저는 자주 미세하지만 강력한 에너지를 느꼈는데 마치 바람처럼 한바탕 스쳐 지나가며 몸 주위의 어떤 물질을 청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묘사했다. “또 한번은 많은 기포가 끊임없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기포마다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생각 하나가 담겨 있는 것 같았고 그것이 발전하기도 전에 휩쓸려갔습니다. 이 기포들은 아주 많다가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사라져 보이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점차 평온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체험은 신체적인 면에서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 변화로도 이어졌다.

이런 체험은 신체적인 면에서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 변화로도 이어졌다. “예전에 불쾌한 일을 겪으면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한 이후에는 다음 날이 되면 그런 혐오감과 불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저는 이것이 아마 책에서 말씀하신 ‘정신과 물질은 일성(一性)이다’라는 법리에 대응된다는 것을 체득했습니다.”

갈등 속의 전환: 안으로 닦다

진정한 고비는 직장 환경 속에서 나타났다. 한번은 동료의 그의 말을 왜곡해 사장이 그를 오해하게 만들었다. 늘 명예를 중시하던 그에게 이런 억울함과 압력은 거의 감당하기 어려웠다. 동료의 시선과 수군거림은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확대됐고 매일 출근하는 것이 마치 고통 속에서 지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도피를 선택하지 않고 꿋꿋이 남아 매일 법공부를 했다.

한 달 후 그의 심경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런 억눌림과 고통이 갑자기 사라지고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찾아와 심지어 참지 못하고 웃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말했다. “동료들이 모두 제게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외부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내면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감개무량하게 말했다. “만약 수련하지 않았다면 저는 진작 퇴사했을 것이고 이 한 달을 아예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안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후 다시 비슷한 갈등에 직면했을 때 썩상푸는 더욱 평온하게 마주하고 자신의 언행을 점검할 수 있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이 상처를 준다고 느끼지만 곧 뇌리에 자신이 예전에 똑같이 다른 사람을 대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는 말했다. “그 순간에야 비로소 문제는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았고 어떻게 안으로 찾고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더 넓은 세계를 보다

수련이 깊어짐에 따라 썩상푸의 ‘신(神)’에 대한 이해 역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신’이 더는 단지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진실로 존재할 때 당신은 우주와 선악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는 말했다. “‘머리 삼척 위에 신령이 있다’라는 말이 제게는 완전히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성격이 엄밀한 그는 여태껏 많은 일을 쉽게 믿지 않았지만 ‘전법륜’을 집어 든 그날부터 이 책을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읽으면 읽을수록 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그 안의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더욱 체득하게 됩니다.”

그는 말했다. “수많은 사람이 수백 번 수천 번 읽고도 계속 읽

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다 탐구할 수 없는 진리가 있고 자신의 제고에 따라 끊임없이 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법의 오묘한 점입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는 수많은 사람의 일생을 괴롭히지만 반드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썩상푸는 오랜 추구와 사색 끝에 마침내 ‘전법륜’ 속에서 평생을 바쳐 실천하고자 하는 방향을 찾았다. 어쩌면 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심코 책을 펼친 어느 순간 즉 당신이 진정으로 읽기 시작하고 사유하기 시작하며 자신을 기꺼이 변화시키려 할 때에 있을지도 모른다.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4월 30일, 캐나다 애머스트버그시에서 ‘파룬따파의 날 축하’ 깃발을 올렸다. 최근 6년간 캐나다 토론토 및 주변 도시들은 깃발 게양 방식으로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애머스트버그시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깃발 게양식을 연 것은 올해로 5년 연속이다. “작년 깃발 게양식 때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과 이 자리에 함께 있었고, 약 한 달 후 토론토 주재 중국대사관으로부터 파룬따파 지지를 중단하라고 경고하는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들에게 제가 계속 여러분을 지지할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애머스트버그(Amherstburg) 시장 마이클 프루(Michael Prue)가 깃발 게양식에서 작년의 경험을 폭로했다.

5월 3일 낮, 토론토 시내 네이션 필립스 광장에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라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고, 우레와 같은 환호 소리가 시청 광장 전체를 맴돌았다. 이는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맞이해 토론토와 그 주변 지역 파룬공수련자와 커뮤니티 시민이 토론토 시내 네이션 필립스 광장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열어 파룬따파 전파 34주년을 경축하기 위한 것이다. 커뮤니티 리더들이 현장에 와서 연설하며 파룬따파와 파룬공수련자가 세계에 큰 공헌을 했다고 극찬했다. 수상 작가이자 민주중국진선(민진) 글로벌 부주석 성취(盛雪)는 현장 발언에서 “파룬따파는 수련하는 수련자들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중국을 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지난 27년 동안 많은 중국인이 알게 모르게 중국공산당(중공) 사악한 정권의 하수인이 되거나 피해자가 됐습니다. 파룬따파는 전 세계적으로 완전하고 가장 힘 있는 선(善)의 힘을 형성했습니다. 파룬따파 역시 이 세상을 구하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캐나다 국제인권센터 이사 아르데시르 자레자데가 현장에 와 발언했다. “오늘 우리가 다른 배경과 각종 커뮤니티에서 와 이곳에 함께 모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 인류이기 때문이고, 파룬따파가 우리에게 세 가지 간단한 이념인 ‘진선인’을 일깨워 줬기 때문입니다. 이는 누구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가치관입니다.”

5월 2일 오전 11시, 밴쿠버 일부 파룬공수련자들은 시내 예술 광장에서 축하 행사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5·13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기쁘게 축하했다.

미국 오하이오주 앵글우드시(Englewood), 데이턴시(Dayton)

및 메이슨시(Mason)는 각각 표창장을 수여하고 5월 13일을 ‘파룬따파의 날’로 선포했다. 표창장은 파룬공수련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자유사회 시민들이 그들의 헌신을 기억할 것을 촉구했다.

5월 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파룬공수련자들은 차이나타운의 여러 거리에 현수막을 걸고 전시판을 들어 시민들에게 파룬공을 소개하고 중공의 파룬공 박해 진상을 폭로했다. 중학교 교사 카리나 채프먼(Karina Chapman)은 “‘진선인’은 너무나 아름답고, 저는 이를 굳게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해한 ‘진선인’에 대해 이야기했다. “진(眞)은 가장 중요해야 합니다. 선(善)은 당신이 하는 일의 일부가 돼야 하고요. 그리고 인(忍)은 그저 남을 관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을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본연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칙을 매우 좋아합니다.”

4월 25일 정오, 미국 텍사스 휴스턴의 일부 파룬공수련자들이 차이나타운 벨레어 대로(Bellaire Blvd) 앞에서 집회를 열고 ‘4·25’ 평화청원 27주년을 기념했다. 그들은 조용히 서 있었고, 손에 든 현수막에는 ‘파룬공수련자 4·25 27주년 기념, 만 명의 파룬공수련자 청원’, ‘진선인’, ‘파룬따파하오’, ‘중공의 파룬공 박해 제지’,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제지’, ‘애국이 곧 애당은 아니다. 탈당하여 평안을 지키자’ 등의 글귀가 적혀 있었다.

4월 18일, 호주 멜버른 일부 파룬공수련자들은 도심의 랜드마크인 프린시즈 브리지 양측에 수십 개의 진상 현수막을 차례로 펼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27년간 평화롭고 이성적으로 바른 믿음을 지켜온 과정을 알리며 함께 박해를 저지할 것을 호소했다. 건강 및 생물의학 분야 학자 샬럿이 서명했다. 그녀는 파룬공수련자

들이 27년 동안 신앙을 굳게 지키며 박해를 저지해 온 것에 대해 “정말 대단합니다. 이것이 제가 청원서에 서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녀가 말했다. “그들이 이곳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보게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 모두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런 더 높은 차원의 정신수양을 매우 존중하며 신념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이분들을 깊이 존경합니다.”

독일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뒤셀도르프, 뮌헨 등 독일 여러 도시의 파룬궁수련자들이 2026년 4월 22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 앞에서 평화 시위를 열어 중공의 파룬궁 박해 진상을 폭로하고 국제사회에 중공의 박해를 함께 제지할 것을 호소했다.

4월 25일 오후, 스위스 파룬궁수련자들이 수도 베른 시내 콘하우스 광장에서 공법을 시연하였다. 이는 행인들의 발걸음을 늦추게 했다. “그들은 무척 평화롭고 사람들에게 내면의 평온을 느끼게 해줍니다. 특히 복잡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소음 속에서 이런 모습은 제게 진정한 마음의 평온과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스위스의 지질학 전공 대학생 비안느가 감탄했다. 그녀는 이전에 파룬따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고, 대법이 가르치는 ‘진선인’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말 좋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세상에 부족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이 가치를 지니고 실천하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4월 24일 스페인 파룬궁수련자들이 수도 마드리드의 스페인 주재 중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4·25’ 평화청원 27주년을 기념하며 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박해 중단을

촉구했다. 파룬궁 진상을 안 다비드 가르시아(García)는 “파룬따파의 원칙인 ‘진선인’은 마땅히 사회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파룬궁 박해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말했다. “스스로를 치유하고 안으로 찾는 건강한 공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권력자들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혹독한 박해 자체가 사실 파룬궁의 효과를 역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불공정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파룬궁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이런 박해를 당하고 있으므로 박해 소식을 친척과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4월 18일과 25일, 이탈리아 로마, 피렌체, 제노바, 비첸차, 나폴리 등 여러 유명 역사 도시 현지 파룬궁수련자들이 해당 도시에서 행사를 개최해 ‘4·25’ 1만 명 평화청원 사건을 기념했다. 많은 사람이 파룬궁이 중국에서 박해받고 있는 진상을 알고서 청원서에 서명하며 이 박해를 즉각 끝낼 것을 호소했다. 많은 행인이 걸음을 멈추고 수련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박해받는 수련자들에게 큰 관심과 지지를 표했다. 한 중국인 청년이 걸음을 멈추고 부스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자신이 파룬따파와 관련 박해의 역사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진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수련자들에게 깊은 찬사를 보내는 동시에 파룬궁수련자들의 행동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4월 25일, 덴마크와 스웨덴의 일부 수련자들은 각각 중국대사관 앞과 코펜하겐 시내 중심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수련자들의 평화로운 공법 시연과 박해를 폭로하는 진상이 선명한 대비를 이루자 행인들은 잇달아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보았다. 이 평화의 힘은 국경을 넘어 다양한 민족의 마음을 움직였다. 미아(Mia)와 에

스테르(Ester)는 박해 진상 게시판을 보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미아는 감탄하며 말했다. “덴마크에서는 이처럼 단련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얻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저희는 단지 연공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민주국가에서 단련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얻는 것은 기본 권리이며, 평화로운 수련자를 박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4월 25일 오후 일부 아일랜드 파룬공수련자들은 더블린에서 집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진선인’ 수련의 훌륭함을 전하는 동시에 중공의 잔혹한 파룬공수련자 박해를 폭로했다. 행사는 많은 행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오가던 많은 행인이 서명으로 지지하며 이처럼 평화롭고 시선을 끄는 박해 반대 방식을 칭찬했다. 마리는 파룬공수련자들이 대중에게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박해를 알 기회를 준 것에 감사했다. 그녀는 국제 인권 단체 잡지에서 중공이 파룬공을 박해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었고, 수련자들과 거듭 접촉하면서 중공의 파룬공수련자 대상 생체 장기적출 만행을 알게 됐다. 그녀는 중공에 대해 “그들의 박해 수단에 정말 모골이 송연해집니다”라며 규탄했다.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인권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서구 국가의 정부들, 가령 우리 정부가 뜻밖에도 이런 국가와 교류하고 거래한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덧붙여 말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파룬공수련자 그 자체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시종일관 평화로운데, 이로 인해 가장 잔혹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핀란드 파룬공수련자는 ‘4·25’ 주년 전후로 여러 장소에서 집회와 행사를 열어 중공의 파룬공 박해를 규탄하고 조속한 박해 종식을 촉구했다.

폴란드 파룬따파 수련자는 바르샤바 구시가지 광장과 북부 항구 도시 그단스크의 유명한 롱 레인(Długa Street - the Long Lane) 광장에서 동시에 행사를 개최했다.

우크라이나 파룬궁수련자들은 수도 키이우 시청 건물 맞은편 가장 번화한 거리인 흐레샤티크(Khreshchatyk) 거리에서 ‘4·25’ 평화청원 27주년을 기념했다.

슬로바키아 파룬궁수련자들은 브라티슬라바(Bratislava)에서 두 차례 ‘4·25’ 평화청원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4월 23일, 파룬궁수련자들은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 있는 중국대사관 앞에서 행사를 열고 중국 베이징 파룬궁수련자들의 평화청원 27주년을 기념했다. 현수막에는 중국어, 영어, 불가리아어로 ‘세계는 진선인을 필요로 한다’, ‘파룬따파하오’, ‘강제 장기적출을 중단하라’ 등의 구호가 적혀 있었다. 불가리아어 뉴스 웹사이트 노베티카(Novetika)는 4월 24일 지면을 통해 당일 행사를 보도했다. 4월, 한창 늦가을인 남반구의 화창한 아침 남아공 케이프타운 파룬따파 수련자들은 도심의 번화한 교차로에서 파룬궁을 알리고 진상을 알리며 27년 전 ‘4·25’ 평화청원 활동을 기념했다. 아울러 남아공 시민들에게 파룬궁을 소개하고 대법이 전 세계에 널리 전해졌으나 중공의 잔혹한 박해를 받고 있는 진상을 알렸다. 아침 근무 중인 경찰 투라니는 파룬궁수련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대법 진상을 들은 후 그는 “중국 정부가 대법에 대한 잔혹한 박해를 하루빨리 멈추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랴오닝성 푸순시 왕화구 법원은 파룬궁수련자 왕난팡(王南方) 등 10명에게 불법적인 판결을 내렸다. 왕난팡(70세): 불법적으로 7년형을 선고받고 2만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저우수유(周樹友, 63세), 류하이타오(劉海濤), 라이춘롄(來春蓮), 왕귀중(王國忠): 각각 불법적으로 5년형을 선고받고 1인당 1만 5천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왕쩌싱(王澤星), 후밍리(胡明麗), 후핑취(胡鳳菊), 황위핑(黃玉萍·64세), 리수친(李淑琴): 각각 불법적으로 4년 반형을 선고받고 1만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2024년 7월 12일, 10명의 파룬궁수련자들은 납치, 가택수색 모함을 당했다. 칭위안현 공안 국보는 공을 세우기 위해 10명의 수련자를 억지로 ‘조직적 위성 수신기 설치 사건’으로 규정하고, 2024년 9월 조작된 자료를 푸순시 왕화구 검찰원으로 넘겼다. 2025년 11월 11일, 푸순시 왕화구 법원은 푸순시 구치소에서 파룬궁수련자 10명에 대해 첫 번째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2026년 1월 27일, 3월 18일, 19일 다시 세번의 불법 재판을 열었다.

산둥성 지난시 창칭구 파룬궁수련자 류루핑(劉汝平·65), 장청란(張承蘭·62) 부부가 각각 부당하게 3년 반형, 3년형을 선고받았다. 파룬궁수련자 지핑란(季鳳蘭), 왕친핑(王欽平), 팡위성(房玉勝)과 아내 천쉐징(陳學景)은 부당한 재판에 직면했다. 2025년 9월 29일, 지난시 정법위와 공안이 조종해 창칭구 공안분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를 주도적으로 내세우고 지난시의 여러 구 공안(국보) 산하 여러 파출소가 협력

해 아침 6시~8시 시간대에 ‘블랙리스트’에 따라 시 전역에서 40여 명의 파룬궁수련자를 납치했다. 일부 파룬궁수련자는 이미 집으로 풀려났지만[일부는 취保候심(取保候審, 보석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는 조치) 처분을 받음], 최소 18명의 파룬궁수련자가 부당하게 체포 승인돼 지금까지 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있다. 파룬궁수련자 류루핑, 장청란 부부는 2026년 3월 13일, 부당한 재판을 받았다. 파룬궁수련자 지평란(季鳳蘭), 왕친핑(王欽平), 팡위성(房玉勝)과 아내 천쉐징(陳學景)은 부당한 재판에 직면했다.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아청구 파룬궁수련자 스쥬성(石左生·72세), 리홍메이(李洪梅·65세), 천슈메이(陳秀梅), 류수전(劉淑珍)은 2025년 8월 21일 납치돼 불법적으로 감금되고 모함을 받았다. 2026년 4월 29일 이들은 다시 한번 아청구 법원에서 대충 형식만 갖춘 ‘화상 재판’을 받았다. 규정에 따르면 화상 재판은 반드시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 피고인과 변호사가 모두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법원은 여전히 이 방식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판사, 검사와 피고인 간의 대화 역시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됐다. 인터넷 전송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양측의 말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많았다. 이른바 ‘재판’이라는 것이 장난이나 다름없어 피고인과 변호사의 변호 효과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변호사와 가족들이 모두 피고인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여전히 자신이 잘 들었다고 주장한 뒤 이 절차를 넘길 것을 요구했다.

장시성 난창시 파룬궁수련자 장란잉(江蘭英)은 15년이 넘는 중국공산당(중공)의 잔혹한 박해를 겪었다. 장시성 여자 감옥에서

오랫동안 심각한 심신 파괴를 당해 한때 뼈만 남을 정도로 야위었다. 두 다리가 뻗뻗해졌으며 두 발이 심하게 부어올랐고, 이미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었고, 두 눈이 충혈되고 흐려져 물건이 잘 보이지 않았다. 온몸이 마비됐으며 왼쪽 팔은 늘어져 정상적으로 위로 올릴 수 없었다. 그녀는 불구가 된 채 집으로 돌아온 후 2026년 4월 22일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향년 60세다.

중공 사법 박해 부정, 대법이 근본이고 법률은 보조

글/ 중국 대법제자 하문(何文)

[명혜망] 최근 몇 년간 중국공산당(중공)의 사법 박해가 심각해졌다. 전국적인 범위로 명혜망에서는 거의 매일 수많은 사법 박해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심지어 칠순과 팔순의 수련자와 몇 년 전 이른바 ‘감외집행(監外執行)’을 받았던 수련자들까지 감옥으로 납치돼 박해를 받고 있다. 악당의 목적은 바로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를 차단하며, 육체를 소멸하는 것’이기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와 관련해서는 애초부터 법률을 말한 적이 없다.

법에서 우리는 사법 박해가 구세력의 안배이고, 사부님의 정법을 교란하며 대법제자의 수련을 파괴하는 동시에公安·검찰·법원·사법·정법위의 중생을 훼손하며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련자를 도태시키려는 것임을 인식했다.

어떤 수련자는公安·검찰·법원 직원에게 진상을 알리고 법률을 이용해 박해를 반대하며 박해 정보를 명혜망에 보내 해외 수련자가 전화를 걸어 구출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많은 수련자가 법률 지식을 배우며 박해가 어떤 ‘법률 절차’에 이르렀을 때 법률 자료를 제출할 준비를 한다.

사부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것의 이 일체를 부정하며, 그것들을 부정하고 배제하는 중에서 당신들이 행한 일체야말로 위덕이다. 그것들이 조성한 마난 속에서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승인하지 않는 가운데서 자신의 길을 잘 걷

는 것이며, 그것들 자체를 제거하는 마난의 표현마저도 승인하지 않는다.”(각지 설법4-2004년 시카고법회 설법)

진상을 알리지 않고, 악을 폭로하지 않으며, 법률을 배워 박해를 반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상 속에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못하는 관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속인 중에는 형사 사건이 일단 입건되면 중지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악당의 법률 강제 조치에 구속받고 필연적으로 악당의 ‘법률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경찰이 틀림없이 계속 찾아올 것이라고 여긴다. 이것은 악당의 법률과 제도가 자신에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고 바로 구세력의 안배를 인정한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말하자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말하고 행하는 반(反)박해는 모두 박해를 인정하는 중에서 박해를 반대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대법제자이기에 오직 사부님께서 관할하시고 일체를 사부님께서 안배하시는데 어떻게 구세력의 시련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것은 사법 박해를 인정한 것이 아닌가? 우리의 제고는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우주 대법에 의지한다. 내가 체득한 바는 단지 ‘사법 박해’를 빌려 진상을 알리고, 법률을 이용해 박해를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사법 박해 자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법 박해는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대법과 전체 대법제자라는 정체(整體, 공동체)를 겨냥한 박해이기 때문이다. 휘멸되는 것은 찾아온 경찰, 검찰원, 법원, 구치소 등의 중생뿐만 아니라 정념이 부족해 3서(三書, 세 가지 수련 포기 각서)에 서명한 수련자 및 영향을 받은 가족과 친척, 친구도 포함된다.

중공 악당의 ‘법률’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은 이러하다. 악당은 서방에서 온 유령으로 비둘기가 까치집을 차지하듯 중화 대지를 강점해 사악한 정권을 세웠다. 그것의 이른바 입법기관, 사법기관 등은 마귀가 사람을 해치는 촉수이자 하부조직과 같다. 따라서 그것이 제정한 이른바 ‘법률’은 뿌리부터 사교의 도구에 불과하며 (중공이 진정한 사교임) 정상 국가의 법률 개념과 의의를 갖추지 못했다. 중공 악당의 본질은 단지 ‘법률’이라는 명사를 빌려 진상을 모르는 국내외 인사를 미혹하도록 만들어졌다. 하나하나의 법률 규정과 하나하나의 ‘법률’ 명사, 강제 조치 및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법률 절차’가 공동으로 중생을 납치하고 훼손하는 죄사슬을 구성했다. 그것은 조변석개하고 법을 알면서도 법을 어기며 법을 집행하면서도 법을 어기니 안팎으로 이미 오래전에 썩어 문드러졌다.

만약 우리가 자신을 박해받는 위치에 놓고 필연적으로 이 ‘법률 절차’에 따라 가야 한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스스로 이 안배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이때는 사부님과 호법신이 관할하기 어렵다. 어느 수련자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악이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것은 이미 체계화, 절차화됐고 하나의 메커니즘을 형성해 감옥에 있든 없든 다 마찬가지로 이 메커니즘의 형성은 하루 이틀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자신을 대법제자로 여기지 않는다면 무형 중에 바로 이 메커니즘에 에너지를 수송해 끊임없이 그것을 강화하고 완비하는 것이다. 그것이 형성되고 강화된 이후 계속해서 다른 수련자를 박해할 것이다.”

우리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법 박해의 심각한 표상이 우리의 인식 부족 및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은

가?

하나의 박해가 형성될 수 있는 첫 번째 전제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사유 속에서 자신이 응당 악당의 불법적인 ‘법률 행위’인 납치, 가택수색, 구금, 판결 등의 관제를 받아야 한다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악당은 공안·검찰·법원을 조종해 그것이 정한 ‘법률’ 중의 몇 가지 명사를 가지고 와서 시험하고 먼저 ‘전주곡’을 울리며 우리가 박해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우선 그것이 말하는 무슨 ‘입건’, ‘취保候심(取保候審, 보석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는 조치)’, ‘거주지 감시’, ‘재판’, ‘몇 년형 판결’, ‘온라인 수배’ 등과 그 밖에 무슨 ‘법률 절차를 밟는다’고 하든 그것이 말하는 어떤 말이나 명사도 진짜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모두 백골 요괴의 술수이니 믿지 말고 그것의 박해 논리에 따라 생각하지 말며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작용할 수 있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대법제자는 오직 고층차의 대법이 관할하고 속인 요소와 삼계가 관할하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 볼 때 악당의 어떠한 법률도 우리를 관할할 수 없다. 게다가 그들이 말하는 ‘법률’은 모두 위법 범죄를 저지른 속인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대법제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우리는 사람 속에서도 사람을 구하고 좋은 일을 하므로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으며 포상받아야 옳다. 그러므로 그것이 말하는 이런 ‘법률’의 구속 범위 내에 있지 않고 법률적 효력도 없으며 우리는 그것의 ‘법률’에 규정된 책임과 의무를 짊어질 필요도 없어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에게 빈틈이 있든 없든, 잘했든 못했든 오직 사부님께서만 관할하시

며 누구도 감히 간섭할 자격이 없다. 박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이미 발생했다면 표면 공간의 박해가 어느 절차까지 진행됐든지 모두 즉시 법에서 인식해 올라와 이후의 박해를 모두 부정하고 해체해 버릴 수 있다. 어떤 일은 사람 속에서는 필연이지만 대법 안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확고하게 사부님을 믿고 법을 믿어야 한다. 대법은 끝이 없고 불법(佛法)은 만능이다.

사부님께서서는 “당신들은 아는가? 대법제자라, 당신들의 정념은 작용이 있다. 당신들 매 한 사람이 일으킨 작용을 합치면 거대하기가 비할 바 없다. 것처럼 큰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신심이 부족하고 정념이 부족한 탓이다.”(각지 설법11-무엇이 대법제자인가)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대법을 제1위에 놓고 근본적으로 사법 박해를 부정하고 해체해야 하며 사상 속에서 절대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기점을 바르게 놓아야 한다. 그런 연후 이 기초 위에서 우리는 대법 진상을 알리고 ‘법륜’을 이용해 박해를 반대해야 하는데, 목적은 사람을 구하고 중생을 만류해 다시는 박해에 가담하지 않게 하며公安·검찰·법원·사법 등 관련 직원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체를 형성해 발정념으로 대법과 중생을 박해하는 ‘사법 박해’를 철저히 해체하기를 바란다.

개인의 깨달음이니 부적절한 곳이 있다면 수련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길 바란다. 허스.

경찰의 스쿠터 위치추적기 부착에 대한 주의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중국 수련생들에게 작은 일이지만 꼭 알려야 할 것이 있어 이 글을 씁니다. 어떤 이유로든 불법 구금됐다가 풀려났을 때는 그 기간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 타고 갔던 차나 스쿠터에 위치추적기가 설치됐을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특히 스쿠터는 더욱 그러합니다. 차량을 점검하지 않고 그대로 타고 수련생 집을 방문하는 등 이곳저곳 다닌다면 행동 하나하나, 어디에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까지 전부 저쪽에 감시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실제로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 수련생 집에서 법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이 들이닥쳐 불법적으로 체포했습니다. 사부님의 보호와 정념정행 덕분에 그날 새벽에 풀려났습니다. 스쿠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스쿠터는 그 아파트 단지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고 경찰이 차로 우리를 그 단지까지 데려다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경찰에게 진상을 알려줬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대법의 아름다움을 마음속으로는 알면서도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고 우리를 대하는 태도도 꽤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에서 스쿠터를 찾을 때 이미 제 스쿠터에는 위치추적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새벽에 막 풀려난 터라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별생각 없이 그냥 바로 스쿠터를 타고 나왔습니다. ‘경찰도 진상을 들었고 우리를 풀어줬으니 이 일은 끝난 거 아닌가?’ 싶어 그만 경계심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스쿠터 충전선이 너무 짧아 정상적으로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분리해 집 안에서 충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터리를 꺼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배터리 칸 뒤쪽 비스듬한 곳 아주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검은색 직사각형 물체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표면은 플라스틱 외피였는데 한 면에 자성이 있었고 배터리 칸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어리둥절한 채 ‘이게 뭐지? 어디서 온 거지? 내 스쿠터 부품인가?’ 하는 의문을 안고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바로 위치추적기였습니다. 위치 추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경찰이 고의로 설치한 것입니다. 한번 충전하면 3년을 쓸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타고 여기저기 다녔다면 앞으로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고 얼마나 많은 수련생이 연루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는 정말 낚시줄을 길게 늘어뜨려 ‘낚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확인한 후 저는 그것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파괴하면 저쪽에서 즉시 알아차려 ‘뱀을 놀라게 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주 먼 곳에 갖다 버리고 스쿠터도 다시 구석구석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이 일을 쓰는 것은 현재 중국 환경에서 안전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중국 수련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 스쿠터를 찾을 때(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집

으로 타고 돌아가지 마십시오(저쪽에서 아직 여러분의 집을 모른다면). 먼저 사람 없는 구석진 곳으로 가서 차량에 손댄 흔적이 없는지, 위치추적기가 설치됐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면 스쿠터를 타지 말고 바로 걸어서 귀가하거나 중간에 스쿠터를 어딘가에 세워두고 걸어서 집에 간 다음 시간이 날 때 가서 찾아도 됩니다. 점검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때 타고 돌아가십시오. 요컨대 저쪽에서 아직 여러분의 상황을 모른다면 그차를 타고 바로 집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의 손을 거친 물건은 돌려줄 때도 심중팔구 손을 댔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틈을 주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신중해야 할 때 신중해서 자신과 수련생들에게 불필요한 손실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위치추적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검색해 미리 파악해 두십시오. 이 방면의 지식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위치추적기를 찾으려면 천천히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자석이 달린 위치추적기는 차 밑바닥, 범퍼 안쪽, 휠 하우스 윗부분에 자석으로 붙어 있거나 차 안의 좌석 아래, 계기판 아래, 글러브 박스 또는 좌석 안쪽 틈새에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또 후사경 부근, OBD 단자, 엔진 배터리 바로 아래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드디어 심성을 수련할 줄 알게 되다

글/ 헤이룽장성 대법제자

[명혜망] 근 30년의 수련 중에서 법을 실증하는 일을 많이 했다. 집을 떠나 떠돌던 그 시절은 가장 힘들었는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비바람 속을 뚫고 다녔다. 수련생들은 모두 내게 대담하면서도 세심하다며 탄복했고 나는 많은 지역의 수련생에게 진상자료와 장비를 제공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큰일을 했어도 나는 심성 제고 면에서 형편없었다.

나는 몇 년 전 수련 과정 중에 고비를 넘을 때 자신을 수련하는 사람으로 여길 줄 몰랐다. 왕왕 스스로 분개하고 원망하는 마음, 한탄하는 마음, 쟁투심, 자만심이 있었으며 심할 때는 마성이 크게 발동해 많은 일반인도 나의 마성보다 크지 않을 정도였다. 때로는 한번 화가 나면 며칠 동안 스스로 헤어 나오지 못했고 모두 다른 사람이 좋지 않고 모두 다른 사람이 내게 불공평하며, 잘못은 모두 다른 사람의 것이고 옳은 것은 모두 나라고 여겼다. 매우 따지고 파고들었으며 일 자체만 가지고 따졌고 게다가 자신이 이치가 없어도 억지를 부렸다.

법공부를 할 때면 정신이 들었고 고비를 잘 넘지 못하고 심성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끝없이 후회했다. 때로는 자신의 뺨을 때리고 허벅지를 꼬집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넘지 못하는가? 왜 넘지 못하는가? 중국의 험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칼끝에서 살아왔는데 설마 이 정도 집착심도 수련해 없애지 못한다는 말인가?’

한번은 굳게 결심하고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물었다. ‘제대로 수련할 수 있는가, 수련할 수 있다면 자신을 제대로 수련하고 진정으로 자신의 그 마음을 수련하자.’ 나는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심성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깨달았다. ‘나는 연공인이니 갈등에 부딪혔을 때 반드시 억제하고 자제하고 배척하며 각종 집착 관념을 원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내 머릿속에 이런 습관을 형성하려 했다. 이후 나는 마음속으로 자주 이 몇 마디를 묵묵히 외었다. ‘나는 연공인이다. 갈등에 부딪혔을 때 반드시 억제하고 자제하고 배척하며 각종 관념과 집착을 원하지 말자.’

예전에 아내 수련생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대부분 고비를 넘지 못했고 거의 모두 마성이 크게 발동해 전혀 안으로 찾지 않았다. 항상 속인의 이치로 일을 따졌고 심성 제고는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생활 속에서 나는 식초를 먹지 못했는데 어릴 적부터 신 것을 먹지 못했다. 특히 냉채를 무칠 때 식초를 몇 방울 넣는 것은 괜찮았지만 조금만 많이 넣어도 너무 셔서 참을 수가 없었다. 아내(수련생)는 신 것을 특별히 좋아해 매번 냉채를 무칠 때 식초를 많이 넣었고 나는 아예 먹을 수가 없었다. 예전에 나는 늘 마음속으로 화를 내고 원망하며 온갖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가 다투고 난 뒤에 또 후회했다. 나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일을 심성 제고의 기회로 삼지 않았고 속인의 이치로 가늠하며 아내를 배려하지도 않았다.

그 뒤 아내가 냉채를 만들 때 그녀는 항상 내게 물었다. “식초를 조금 적게 넣을까요?” 나는 평소대로 넣으라고, 얼마를 넣든 괜찮다고 말했다. 한번은 냉채를 먹을 때 정말 너무 셔서 견딜 수 없어 막 화를 내려다가 즉시 생각했다. ‘억제하자, 자제하자, 반드시 자신을 수련해 이 고비를 잘 넘기자.’ 그러고는 화를 내지 않았다. 잠시

후 사상이 점차 평온해졌고 화도 나지 않았다. 나는 드디어 자신을 연공인으로 여기며 생활 속 작은 일에서 수련할 줄 알게 됐고 사람의 이치에서 벗어나 수련인의 기준으로 자신에게 요구하게 됐다!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했다. ‘먹고 싶고 먹기 싫은 것, 이것이 모두 집착심이 아닌가?’ 나는 생각했다. ‘반드시 이 집착심도 수련해 없애버리자, 먹기 싫어도 먹자.’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몇 차례 냉채가 매우 썩을 때 아내도 “냉채가 너무 시네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난 그 냉채를 먹을 때는 아무런 신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도 체험했다. 수련 중에 안으로 찾고 자신을 수련하면 이런 신기한 현상이 나타남을 말이다. 나는 매운 것도 먹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아무리 매운 음식을 먹어도 내게는 매운맛이 나지 않았다.

생계를 위해 나는 간병인이 돼 한 노인을 돌봤다. 노인은 매일 화장실에 수십 번씩 가서 대변을 봐야 했다.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몇 초 동안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매번 화장실에 갈 때마다 몹시 다급해하며 이렇게 소란을 피웠다. 그는 성질이 매우 고약했는데 처음 두 달 동안 나는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정성껏 돌보며 매사에 그를 배려했다. 시간이 지나자 심성을 계속 제고해야 했는데 나는 약간 견디기 힘들어졌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이 노인은 너무 돌보기 힘들어요, 나 일 그만할래요.”

아내가 말했다. “당신이 여기서 일하면 월급도 벌고 심성도 높일 수 있는데 어디 가서 이런 좋은 일을 찾겠어요.” 넘기 힘든 고비라고 내가 도피하려 한다면 이는 또 한 번 제고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늘 기회를 놓친다면 이것이 수련인가? 나는 굳게 결심했다. ‘반드시 이 환경 속에서 제고해 올라가자.’

한번은 내가 밥을 하고 있었는데 냄비에 기름이 달궈져 막 파

를 넣었을 때였다. 노인이 방 안에서 급한 일이 있다며 빨리 오라고 나를 불렀다. 냄비 안의 파에서 곧 연기가 날 것 같아 나는 서둘러 채소를 냄비에 넣고 불을 켰다. 내가 방에 막 들어서자 그는 얼굴에 노기를 가득 띠 채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크게 화를 냈다. 나도 막 화를 내려다가 즉시 생각했다. ‘나는 연공인이다. 반드시 화를 내는 마음과 쟁투심을 자제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자.’ 나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다. “형님, 무슨 일이시기에 이렇게 급하세요?” 노인이 말했다. “별일 아니야, 텔레비전 채널 좀 바꿔줘.” 내가 이어서 말했다. “형님, 방금 저를 부르셨을 때 냄비에 파를 막 넣어서 기름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제가 바로 방에 들어왔으면 기름과 파가 타버렸을 거예요. 채소를 냄비에 넣고 바로 왔습니다. 늦게 온 거 형님이 용서해 주세요.”

내 해명을 듣고 그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차렸고 화를 내지 않았다. 그를 간호하는 기간에 이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고 심성을 높일 일에 부딪힐 때마다 나는 모두 나 자신을 수련하며 매사에 그를 배려했다.

그 뒤 노인은 변해 매일 화장실에 3~4번만 갔다. 내가 노인에게 “저는 여기서 더 일하지 않을 테니 얼른 간병할 사람을 구하세요”라고 말했을 때 노인이 즉각 말했다. “절대 가지 마시오. 당신이 내게 너무 잘해줘서 내 가족조차도 당신을 따라가지 못해. 당신이 가면 나는 어찌란 말이오?” 노인의 가족들도 몇 차례 전화를 걸어와 내게 돌아와 달라고 간청하며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저를 아시잖아요. 저는 월급을 올려 받으려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집을 떠날 수 없는 일이 생겨서 그만두는 겁니다.”

반드시 법공부 장소와 자료점 안전에 주의하길 바란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명혜망 ‘처음부터 시작하는 자료점 구축 실용 기술 수첩’은 자료점의 안전 운영 주의사항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자료점과 법공부 팀은 가능한 한 분리해야 합니다. 자료점의 일은 자료점의 수련생과 협조를 책임진 수련생 외에는 다른 수련생이나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료점은 가능한 한 단선 연락을 유지해야 하며, 자료점의 안전 원칙은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단지 개별적인 협조인과 기술 수련생, 그리고 개별적으로 자료 전달을 책임진 수련생만 알면 됩니다.”

단선 연락, 자료점과 법공부 장소 분리, 수구(修口), 단지 개별적인 협조인과 기술 수련생 및 자료 전달을 책임진 개별 수련생만 아는 것…… 이러한 측면은 모두 자료점의 기본적인 운영 주의사항과 안전의식이며, 우리가 마땅히 힘써 실천해야 할 부분이다.

(1) 일부 수련생들이 자료점에 모여 법공부를 하는 현상이 발견됐다. 법공부 인원도 많고 빈도도 비교적 높아 일주일에 3~4번 한다. 이유는 자료점에 수련생 혼자 있어 드나들기 편리하고 자유롭기 때문인데, 우리가 과연 법공부 장소와 자료점의 안전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가? 많은 수련생이 사악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이동하면 많은 요소를 건드려 미행을 당할 수도 있고 주변 CCTV에 감시될 수도 있다. 무슨 사악이 매우 약해졌다느니, 괜찮다느니, 아무 일 없다느니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말이다.

사부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박해의 최후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사악은 줄곧 모두 박해를 중지하지 않을 것이며, 내일 끝나더라도 오늘 그 사악은 여전히 예전처럼 악행을 할 것이다.”(각지 설법2-2002년 미국필라델피아법회 설법)

법공부 장소가 자료점이기도 하다. 만약 한 수련생에게 문제가 생기면 전체 법공부 장소가 연루될 수 있다. A 수련생이 진상을 알리다 납치됐는데(부주의로 마스크와 모자를 쓰지 않아 선명한 사진이 찍힘), 악인은 자료 출처를 추적하려 했고 수련생은 당연히 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A의 휴대폰에는 B 수련생의 연락처가 있었다. 10여 일 후 A가 나왔을 때 휴대폰을 돌려받고 즉시 B의 연락처를 삭제했는데, 사악이 이를 보고 의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B의 남편이 갑자기 고향에서 전화를 걸어 B에게 여기 저기 다니며 일하지 말라고 했다(현지의 사악이 B 고향의 관계자에게 통지했고, 그녀의 남편을 찾아낸 것이다). 주의할 점은 휴대폰 통화 중에 다른 민감한 일을 말하지 않더라도 휴대폰에 연락처와 통화 기록만 있으면 사악에 의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악이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이 일 때문에 법공부 장소의 다른 사람들도 감히 오지 못했고, B는 마음이 불안해 결국 고향으로 돌아갔으며 법공부 장소도 운영을 멈췄다.

어떤 일이든 양면성이 있다. 다들 한번 생각해 보라. 법공부 장소에서 법공부를 마친 후 자료를 가져가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매우 편리하고 수월하여 많은 수련생이 의지하고 집착한다. 하지만 인원과 물류가 지나치게 집중되면 안전의 숨은 위험과 위험 요소도 배로 증가한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이 지역에서만 70여 명이 납치됐는데, 그중에는 여러 법공부 장소가 포함돼 있었고 함께

법공부를 하다가 납치된 사람이 10여 명에 달했다. ‘7·20’ 이래 그토록 여러 해 동안 이처럼 광적인 적이 없었다. 곧 종결될 테니 박해가 없을 거라는 말은 하지 말라. 법공부 장소와 자료점은 사악이 중점적으로 주목하는 목표다. 절대 방심하거나 독단적으로 행동하며 요행을 바라지 말라. 그러면 자신과 남을 모두 해칠 뿐이다.

(2) 또 휴대폰을 가지고 자료점에 가는 수련생이 있다. 휴대폰 문제는 사부님 설법에서 이미 여러 번 언급하셨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당신은 하나의 도청기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간첩과 정부뿐만 아니라, 누구든 마음대로 당신을 도청할 수 있는데, 매우 간단하다. 바로 이러한 일이고, 핸드폰을 끄든지 안 끄든지 마찬가지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당신이 알다시피 중공사당 거기에서도 듣고 있다.”(각지 설법 14-2016년 뉴욕법회 설법)

10여 년 전, C 수련생 부부는 매우 열성적으로 수련생을 기꺼이 도왔고 어떤 항목이든 다 했다. 하지만 안전 문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집에서 일주일에 3~4번 법공부를 했고 매번 10여 명에서 20여 명이 모였다. 수련생이 인원이 너무 많다고 일깨워주자, 그는 이들은 모두 사부님께서 오게 하신 건데 누가 못 오게 할 수 있느냐고 했다. 주민센터 경찰도 그들을 찾아온 적이 있으나 단호히 거절당했다. 특히 휴대폰 안전에 주의하지 않았는데, 전화로 무슨 말이든 다 하고 아무와 다 연락하며 절대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다. 수련생들이 “사부님께서 휴대폰은 도청기라고 하셨습니다”라고 권고하자, C의 아내는 “이것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지 신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라고 했다. 결국 한 달도 안 돼 C 부부는 납치됐고, 그와 전화 연락을 했던 D 수련생 부부도 동시에 납치됐다. 그들에게 종이를 대주던 일반인 판매자도 납치됐다. C 부부는 모두 8년

형을 선고받았고, D 부부는 한 명은 8년형, 한 명은 3년형을 선고받았다[D 부부 두 사람은 감옥에서 사오(邪悟)해 줄곧 돌아오지 못함]. C의 아내가 전화로 직접 E 수련생에게 자료를 만들라고 한 탓에 E가 노출돼 사악의 감시를 받았고, 1년 뒤 납치돼 7년형 남짓을 선고받았다. E는 감옥에서 사오해 반대편으로 향했고 지금도 돌아오지 못했다. 이러한 피의 교훈을 우리는 마땅히 새겨야 한다. 박해가 하루라도 끝나지 않는 한, 우리는 반드시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한 가지 상황을 발견했는데, 일부 수련생에게 안전 문제를 언급하면 듣기를 매우 꺼리며 자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에게 좋지 않은 물질을 주지 마세요. 이런 일들을 서로 연결하지 말고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생각하기만 하면 구세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합리적인 건의를 받아들이면 박해를 당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구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매일 박해가 일어나는가?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입으로는 사악의 박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행동으로는 여전히 구세력의 요구에 따라 걷고 있다면, 그것이 구세력을 부정하는 것인가? 여전히 구세력의 안배에 따라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명혜망에는 매일 수련생이 박해받았다는 소식이 올라오는데, 그중 사부님께서 미리 일깨워주셨는데도 듣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은가. 수련생이 일깨워주어서 박해를 초래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사람 마음과 집착, 큰 누락이 있어 구세력에게 트집을 잡혀 박해를 당한 것인가? 귀를 막고 방울을 흠치듯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일반인도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롭고,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에 이롭다고 했다. 만약 어떤 문제든 일률로 배척한다면 어떻게 안으로 찾아 제고해 올라갈 수 있겠는가?

우리 모두 반드시 법공부 장소와 자료점의 안전에 주의하자.

대법제자의 원고에서 오자·탈자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명혜망](명혜 편집부) 오랫동안 관련 대법제자들이 각자의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왔음에도, 명혜망에 발표되는 글에서 오자·탈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어느 정도 파룬궁수련자 집단에 대한 대중의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 출판계에서 ‘오자·탈자의 완전 근절’은 이상화된 목표로 여겨지거나, 일류 신문사조차도 100% 달성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대법제자로서 자신의 에너지가 매우 순수하고, 호법(護法)과 사부님 법신의 가지(加持)하에 ‘오류율 제로’를 목표로 삼는 것은 결코 분에 넘치는 일이 아니다. 먼저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해야만 높은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생긴다.

1. 극도로 제한된 환경이 가져다주는 도전

실제 상황은 이렇다. 물리적 사무실이 없고 전원이 원격 근무이며 주로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작업 환경에서는 확실히 교정 피로와 절차 단절이 발생하기 쉽다. 매 수련인의 상태, 특히 명혜망에 원고를 쓰고 편집하며 교정하는 과정에서, 업력과 다른 공간의 좋지 않은 생명들도 수시로 빈틈을 노려 교란하려 한다.

문제는 이렇다. 명혜망의 콘텐츠는 중국공산당(중공)과 대다수 인터넷 기업으로부터 고도의 민감 사안으로 간주된다. 작업 절차는 탈중심화돼 있고, 인원은 재택근무를 하며 서로 오랜 세월 물리적으로 격리돼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외부 도구(AI, 클라우드 협업 등)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고 전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뤄진다. 그 밖에 조용히 행동하는 것과 안전 측면의 다른 불편

함도 있다. 이처럼 극도로 제한된 환경에서 어떻게 매우 높은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을까?

답은 전통 출판사의 가장 엄격한 ‘오프라인 인쇄매체’ 교정 모델을 참고하고, 분산 협업의 특성에 맞춰 개량해 산업급 협업 절차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오류율을 극히 낮은 수준으로, 심지어 오류 제로로 낮출 수 있다.

2. 전면 수작업 오프라인 교정 절차

제1단계: 물리적 차원의 ‘시각 전환’

대뇌는 익숙한 모니터와 글꼴에 대해 ‘자동 오류 수정’이라는 기만성을 보인다. 외부 도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물리적 수단을 통해 대뇌를 강제로 ‘재부팅’해야 한다.

- 이체자/글꼴 전환: 초벌 교정이 끝난 후, 교정자는 반드시 문서 전체를 선택해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글꼴[예컨대 명조체를 방송체(仿宋體)나 해서체로]로 바꾸고 글자 크기를 키워야 한다. 이러한 시각적 낮춤은 오자·탈자 발견 능력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 역방향 읽기법: 핵심 제목, 구호, 인명에 대해서는 교정자가 글의 마지막 문장부터 거꾸로 읽도록 요구한다. 이는 논리적 관성을 깨뜨려 주의력이 ‘의미’가 아닌 ‘글자’에 집중되게 하며, ‘독서’가 아니라 ‘교정’을 하게 한다.

제2단계: 3교, 분층 교정, 교정 대조 확인, 최종 교정(핵심 절차)

물리적 사무실이 없으므로 ‘릴레이식 오프라인 교정’ 방식을 채택해 매 원고가 최소 세 쌍의 서로 다른 눈을 거치도록 보장할 것을 권한다.

1) 텍스트 전처리: 저자 외의 인원이 담당하며, 글꼴, 글자 크기, 누락된 글자, 추가된 글자, 불필요한 공백, 문장부호 오류가 없도록 보장한다.

2) 1차 교정(논리와 상식): 고유명사, 낱자, 논리적 일관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3) 2차 교정(색상 블록 대조): 이는 실용적인 방법으로, 매 교정자에게 ‘고빈도 오류 단어 목록’(오프라인 문서)을 배부해 교정자가 글에서 민감 단어나 중점 단어를 발견할 때마다 수동으로 색상을 표시하고, 모두 표시한 뒤 색상 블록 안의 글자가 정확한지 일괄 점검하는 방식이다.

4) 3차 교정/단계별 교정(서로 다른 요소를 서로 다른 층위로 나누어 대조한다)

- 숫자 점검: 아라비아 숫자와 한자 숫자의 구분 사용 규범.
- 글꼴 점검: 간체자와 번체자가 혼용됐는지 여부.
- 사실 점검, 요점 점검, 경문 대조, 문법 점검, 편집 요소/서식 대조.
- 구조적 점검: 대제목, 서명, 도입부, 결어와 1차 독자군의 대응성 점검.
- 사진: 사진과 글의 요점 간 대응성 점검, 사진 설명의 규범성 점검.
- 스타일/미적 요소 점검: 사진, 지면 구성 요소, 색상 디자인의 미관성과 균형감 점검.

5) 교정 대조 확인: 교정 대조 확인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등급/층위 인원의 교정 결과를 모두 상위 등급 편집자가 정오를 확인해야 한다. 오류일 경우 반드시 대조해 수정 완료를 보장하고, 교정자의 오판일 경우 편집자는 반드시 대조해 원본이 그대로 보존됐음을 확인해야 한다.

6) 분할 교정법

편폭이 긴 작품, 예컨대 정기 간행물이나 장문에 대해서는 이것이 매우 저비용이면서도 효과적인 ‘실용적인 방법’이다.

책임자가 장문을 500자 정도의 작은 단락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사람에게 배분한다. 편폭이 짧기에 교정자의 집중도가 매우 높아진다. 마지막에는 한 명의 총편집자가 작은 단락들을 이어 붙이고 연결 부위의 매끄러움을 점검한다. 이러한 ‘화정위령(化整爲零, 큰 것을 잘게 나누다)’ 방법은 인원이 서로 다른 지역에 분포해 있고 대면 사무실이 없는 작업 조건하에서 피로감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7) 항목 교차법

사람의 눈은 같은 종류의 것을 오래 보면 피로해지고 민감도가 떨어지기 쉽다. 예컨대 ‘박해 사례’류 글에 익숙한 교정 편집자는 ‘수련 심득 체득’, ‘시사 평론’, ‘해외 보도’, ‘문화류 글’과 정기적으로 교차해야 한다. 이로써 깨어 있는 ‘교정 상태’를 유지하고 ‘독서 상태’로 전환돼 ‘무효 작업’(절차와 시간을 낭비하고 상하 단계에 부담과 압력을 주는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의 1:】 명혜망과 같이 전적으로 자원봉사자에 의존하면서도 20여 년간 정상적인 대면 근무 환경을 가져 본 적 없는 조건하에서는 반드시 ‘두 다리로 걸어야’ 한다. ‘수련 상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강성 절차’(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문서로 남기지 않는다)를 준수해야 한다. 수련 상태와 강성 절차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어느 하나도 빠질 수 없다. 전자는 수련자의 자각성과 자신이 처한 경지에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작업 환경의 어려움을 보완하며, 후자는 개인의 수련 상태에 기복이 있을 때 명혜망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마땅한 방향과 상태대로 운행되도록 보장한다.

【주의 2:】 매우 신뢰하는 수련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교차 교정을 통해 서로의 빈자리를 메우고, 피로와 해이, 있을 수 있는 교란을 제거해야 한다.

3. 오프라인 교정의 관리 방안과 준칙

대면이 불가능하고 클라우드 도구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관리 상 한 세트의 오프라인 준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 『오프라인 오류 정정 매뉴얼』 수립

이는 가장 경험이 풍부한 편집자가 정리한 『오프라인판 자주 틀리는 글자 대조표』다.

① 다음을 포함한다. 동음자 변별[예컨대 ‘시간’을 ‘사건’으로, ‘사존’을 ‘세존’으로, ‘사부(師父)’를 ‘사부(師傅)’로, ‘홍음(洪吟)’을 ‘홍음(哄吟, 떠들썩하게 읊다)’으로 잘못 쓰는 경우 등], 수련자 내부 교류의 ‘테두리 안’ 어휘, 대중을 향한 일상 및 전문 용어, 중국의 민감 단어에 대한 대체 규범, 중공의 거짓 선전을 타파하는 어휘(예컨대 ‘전향’은 ‘세뇌/강제로 신앙을 포기시킴’으로, ‘체포’는 ‘납치’로, ‘심판’은 ‘불법 재판’으로, ‘가택수색’은 ‘불법 침입/수색’으로 해야 함) 등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렵다. 동시에 입만 열면 ‘불법’이라고 하는 식의 감정적 표현도 피해야 한다.

② 각 성원의 컴퓨터에 한 부씩 저장한다(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으며 구글 등 인터넷 도구에 저장하지 않는다). 교정 시 강제 대조 도구로 사용한다.

2) ‘교차 블라인드 교정’ 제도

- 신원 격리: 책임자가 임무를 분배할 때, 2차 교정자에게 1차 교정 원고를 누가 썼는지 알리지 않음으로써 인간관계나 신뢰감으로 인한 ‘해이’를 방지한다.

- 오류 공시(오프라인 통계): 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최근 오자 통보’를 정리해 순수 텍스트 형식으로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배포한다. 개인을 겨냥하지 않고 오류 유형을 겨냥해 집단적 ‘면역’을 도모한다.

4. 강제 ‘정지·휴식 점검’

재택근무는 매우 쉽게 피로해진다. 절차에서 강제로 규정해야 한다. 한 원고의 교정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컴퓨터에서 15분간 떨어져 있다가 돌아와서 마지막 한 차례의 ‘영화 돌려 보기’식 스캔을 진행해야 한다.

5. 맺음말/따뜻한 안내

매시간 혹은 45분마다 멈추어 10분 동안 동공(動功)을 연마하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전법륜』으로 법공부하는 것을 견지하며, 교정 과정의 째째이 시간에 경문을 공부하고 법을 외운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수련인의 일면을 강화시켜 줄 것이며, 항목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신의 가호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상태이기도 하다.

명혜망 뉴스 보도 및 편집 실무 매뉴얼(1)

[명혜망](편집부 기존 공개 보도 스타일 및 원칙에 따라 정리, 2026-4-25)

제1부: 핵심 취지 및 기본 원칙

1. 핵심 원칙: ‘진선인(眞·善·忍)’

- **진실성:** 모든 보도는 반드시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중국소식은 최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과장하거나 각색해서는 안 된다.
- **선의와 자비:** 글은 평화롭고 이성적이어야 하며, 혐오 발언이나 과격한 표현은 피해야 한다.
- **중생구도:** 보도의 최종 목적은 진상을 밝히고 선한 마음을 일깨우며 박해를 저지하는 것이다.

2. 보도 방향

- **해외뉴스:** 대법 널리 전해짐, 정계인사 표창, 박해 반대 퍼레이드 및 각종 커뮤니티 활동을 기록한다.
- **중국소식:** 부당한 납치, 판결, 고문, 세뇌반 상황과 더불어 시민들의 각성, 박해 반대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폭로한다.

제2부: 중국소식 수집 및 작성 가이드

중국은 환경이 특수하므로 안전과 정확성이 최우선 과제다.

1. 정보 수집 및 안전

- **익명화 처리:** 피고인이 명확히 요구하거나 이미 공개된 경우가 아니면 정보 제공자의 신변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 **다중 출처 확인:** 중대한 박해 사례(사망, 장애 초래 등)는 가급적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간, 장소, 책임자를 교차 검증해야 한다.

2. 작성 요소(중국소식 ‘5요소’)

- **누가(Who):** 피해자 이름(또는 가명), 나이, 직업, 책임 기관 (파출소,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610 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및 구체적인 책임자.

- **언제(When):** 연, 월, 일까지 정확하게 기재한다.

- **어디서(Where):** 성, 시, 현, 가도(街道) 및 번지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무엇을(What):** 납치, 가택수색, 갈취, 고문의 구체적인 과정.

- **결과(Result):** 현재 갇혀 있는 장소, 가족 상황, 건강 상태.

3. 편집 시 금기 사항

- **‘문화혁명식’ 구호 근절:** 공격성이 강한 정치적 구호 사용을 피하고, 사실 자체가 주는 충격으로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 **전문 용어 남발 방지:** 법적 절차와 고문 묘사를 최대한 알기 쉽게 표현한다.

제3부: 해외뉴스 보도 규범

1. 퍼레이드 및 집회 보도

- **시각적 표현:** 사진은 구도가 깔끔하고 시각이 적절해야 하며 수련자의 평온하고 장중한 정신적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 뒷모습, 역광, 하이앵글은 신중하게 사용한다.

- **현수막 내용:** 사진 속 현수막 글자가 선명하고 의미가 완전해야 하며, 핵심 요구 사항(예: ‘박해 중지’, ‘파룬따파는 좋습니다’)을 전달해야 한다.

- **시민 반응:** 관람객이나 정계인사를 인터뷰할 때 원래 한 말을 정확하게 인용해 사회 각계의 긍정적인 지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2. 표창 및 명절 보도

- **공식성:** 정부가 수여한 표창장(Proclamations)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한다.

- **예의성:** 커뮤니티 활동을 보도할 때 예의를 중시하며 전통문화 회귀의 내포를 담아낸다.

제4부: 편집 및 조판 규범

1. 제목 작성

- **중국소식 제목:** 장소, 인물, 사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 <랴오닝성 다롄시 OO, 부당하게 X년형 선고받아, 가족 항소 기각돼>.

- **해외뉴스 제목:** 호소력이 있어야 한다. 예: <오월에 흠날리는 꽃잎, 뉴욕 수만 명 수련자가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하다>.

2. 상용 어휘 규범표

오류/권장하지 않는 용법	권장 용법	이유
체포	불법 납치/납치	박해의 법적 불법성을 강조
재판	불법 재판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재판은 법적 효력이 없음
경찰	악질경찰/경찰	구체적인 문맥에 따라 단지 깎아내리는 것보다 불법 행위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전향	세뇌/신앙 포기 강요	중국공산당(중공)의 위장된 용어 폭로

3. 사진 편집 권장 사항

- **민감한 정보 가리기:** 중국 수련자와 관련된 사진일 경우 이미 공개된 것이 아니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흐림(블러) 처리를 해야 한다.
- **사진 설명 명확화:** 각 사진에는 상세한 사진 설명이 곁들여져야 한다.
- 더 많은 설명은 별도 문서(사진 설명 작성 규범) 참조.

제5부: 윤리 및 법률 주의 사항

- **저작권 보호:** 원작을 존중하며 전제할 때는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사생활 존중:** 병업, 가정 내 갈등 등 내부 교류 글과 관련해 당사자 정보에 대한 심도 있는 비식별화 처리를 해야 한다.
- **엄밀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뜬소문 발표를 피해야 한다.

맺음말

명혜망 통신원, 기자 및 편집자로서 펜 끝의 글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역사의 증거다. 순수한 마음을 유지해야만 깊은 감동을 주고 악이 두려워하게 하는 보도를 쓸 수 있다.

편집과 통신원 업무에서 자신을 수련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1997년에 법을 얻은 대법제자로, 사부님의 정법을 따라 비바람 속에서 28년을 걸어왔습니다. 사부님께서 이기적이고 도도하며 겁 많던 평범한 저를 한 걸음씩 타인을 위할 줄 아는 선량하고 진실하며 감당할 줄 아는 수련인으로 동화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는 인간의 언어를 모두 동원해도 사부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1. 용량을 확대하여 편집 업무를 맡다

1) 자아의 왜소함

처음에 우리 지역은 대규모 자료점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자료점 수련생들은 겹겹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인터넷 접속, 다운로드, 편집, 인쇄 등의 업무를 담당해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후 대규모 자료점 수련생들이 잇달아 박해를 받으면서 현지 편집 업무를 한동안 아무도 맡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 수련생이 학식이 있으니 이 일에 적합하다며 저에게 권했습니다. 저는 그 수련생이 쓸데없이 참견한다고 여기며, 협조인 수련생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당신이 무슨 근거로 그러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문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부님께서 수련생을 통해 날 일깨워주시는 것은 아닐까? 이번 생에 학식을 갖추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 이 업무를 위해서가 아닐까?’ 법을 얻기 전 직장에서 빠른 중국어 타이핑을 배웠는데, 사부님께서 이미 일찌감치 저를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생

각이 들자 그 수련생에 대한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했습니다. ‘나도 출근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잖아. 게다가 글쓰기에도 서툴고 쓰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데.’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안전하지 않고 위험이 따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저와 수련생들 사이의 격차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수련생들은 중생구도와 안전을 위해 이토록 감당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납치되거나 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반면 저는 압박 앞에서 매사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왜소함을 보았고 아울러 수련생들의 이타적인 경지를 보았습니다.

2) 편집 업무에서 자신을 수련하다

저는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해 편집과 조판 등을 배웠습니다. 사부님의 가지(加持)와 명혜망 편집 수련생의 수정 및 보완을 거쳐 마침내 첫 번째 지역판 주보를 발행하게 되자 매우 보람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한 수련생이 질책하는 말투로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이것 역시 저의 용량을 넓혀주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우리 지역 노동수용소에는 전 성의 많은 대법제자가 불법적으로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악한 경찰들이 사용하는 고문은 극도로 야만적이고 잔인했으며 어떤 수련생은 박해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처음 이 내용을 편집할 때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경찰들의 사진마다 잔인하고 변태적이며 흉악하고 교활한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특히 밤이 깊고 주변이 고요할 때면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는 듯했고 마치 수많은 눈이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아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다른 공간에서 정사대전이 벌어지고 있

음을 알았습니다.

지역판 주보의 주요 내용은 현지 정법위와 610 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 전담 기구)이 대법제자들에게 가한 박해를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악경(惡警)과 나쁜 사람을 폭로하고 사회에서 그 사람의 악행을 공포(公布)하는, 이런 방법은 이성(理性)이 없는 그런 악인을 두려워 떨게 하는 데할 수 없는 큰 작용을 일으켰다”(정진요지3-수련생 문장에 대한 평어) 주변의 실제 박해사례를 주보 형식으로 대중에게 전함으로써 사악을 효과적으로 해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호 지역판 주보를 주로 저녁 식사 후에 편집하고 정리하기 시작해 때로는 한밤중까지 작업했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지만 주보가 현지 사악을 해체하는 날카로운 무기이며 시의성이 강하다는 생각만 하면 피로가 단숨에 사라졌습니다. 때로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환희심, 과시심, 일 욕심, 자아에 대한 집착, 자신을 실증하려는 마음 등 사람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공을 탐하는 것이 아닌가? 사부님의 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서둘러 이 가장 좋지 않은 사람 마음을 제거했습니다.

편집을 배우는 과정에서 명혜망 편집 수련생이 저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면 선택, 사진 배치, 제목 등 여러 방면에서 실제 조작을 통해 시범적인 지도를 해줘 주보의 질이 꾸준히 향상되었습니다.

때로는 지역판 주보가 몇 차례 게재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서둘러 안으로 찾아 관념을 바꾸니 부족한 점을 찾을 수 있었습

니다. 저는 매호 제가 업로드한 것과 게재된 것을 비교해 다른 점과 격차를 찾아냈고 이를 통해 안목을 넓히고 심성을 수련했습니다.

2. 사람 마음을 닦아내며 통신원 업무를 잘해 나가다

주보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사악한 박해를 폭로하는 내용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납치 사건이 발생하면 수련생들은 저에게 박해 보도문을 작성하여 명혜망에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글을 보낸 후 명혜망 편집 수련생은 제가 보낸 글 앞에 ‘명혜통신원’이라는 문구를 붙여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짊어진 책임이 막중하며 결코 피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저에 대한 수련생들의 신뢰와 격려를 느꼈고 무엇보다 저에 대한 사부님의 기대와 당부를 깊이 느끼며 마음속에 정념이 한층 더해졌습니다.

1) 사람 마음 제거

통신원 업무를 하는 것 또한 두려운 마음을 닦아내는 훌륭한 수련 과정이었습니다. 수련생이 납치됐을 때 저 역시 같은 고통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박해 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폭로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었습니다.

한번은 우리 지역의 여러 수련생이 납치됐는데 열흘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서 수련생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다소 불안했습니다. 며칠 전 납치된 수련생의 집에 갔던 어떤 수련생이 그곳에 경찰이 잠복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부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험을 벗어났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움이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되며 이를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L 수련생을 찾아가 함께해 달라고 부탁하려 했으나 그녀는 집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L을 찾아갔더니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어제 오후에 파출소 경찰 두 명이 그녀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CCTV를 확인하고 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이것은 나를 가로막으려는 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집에 간 것은 어제 오전이었는데 오후에 CCTV를 확인했다니 말입니다. 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저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그녀는 응낙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큰 개 한 마리가 길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꿈을 꿉습니다. 다음 날 그녀가 저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L에게 갈 수 있겠냐고 묻자 그녀는 아무 일 없을 것이고 단순한 교란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는 내내 발정념을 하며 카메라와 감시 장비의 교란을 포함한 모든 교란을 제거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제가 다시 그녀에게 괜찮겠냐고 물으며 아니면 밖에서 기다리고 저 혼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L은 매우 확고하게 “괜찮아요, 함께 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박을 사서 수련생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련생의 남편은 몹시 화가 나 있었고 우리에게 화풀이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설 전후에 저는 다른 수련생과 함께 다시 그의 집을 찾아가 상황을 파악하고 500위안을 전달하여 그가 수련생들의 관심과 대법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때로는 지속적으로 폭로하기 위해 납치된 수련생의 가족을 여

러 차례 찾아가야 했습니다. 어떤 가족은 “입구에 새로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으니 다시는 오지 마세요”라고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보도 과정에서 수련생들의 심성 상태도 저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수련생은 체면이나 명예욕 혹은 두려운 마음 때문에 폭로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한번은 한 수련생이 괴롭힘을 당한 사례가 다른 수련생의 사례와 함께 폭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수련생은 누가 올렸냐며 어떻게 하겠다고 험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 역시 제 심성을 단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주 드물게 여러 가지 이유로 보도 내용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생기기도 했는데 이는 공산당 당문화(黨文化)식의 대중 처리하는 행태이자 무책임한 행동이었습니다. 때로는 일을 하려는 마음이 앞서 폭로를 위한 폭로를 하다 보니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폭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중생구도가 진짜 목적임을 깨달았습니다.

2) 인터넷 연결 문제 해결

새 아파트 단지로 이사했을 때 초고속 인터넷을 신청하러 갔더니 직원이 제가 사는 동에는 여유 포트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그는 누군가 이사를 가서 포트가 비어야만 설치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옆에 있던 한 고객도 자기 집도 몇 년째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사부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는 인터넷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인터넷이 연결돼야 합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이 전화를 걸어 포트가 생겼으니 오후에 바로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몹시 감격했고 이는 사부님께서 저를 위해 열어주신 신의 길로 통하는 통로이자 천상의 고향으로 통하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사부님의 성은에 감사드립니다!

3) 친구처럼 대하여 시련을 해소하다

2021년 현지 610 사무실, 주민센터 및 파출소에서는 파룬궁수련생들을 광범위하게 괴롭히며 이른바 ‘제로화(清零)’ 활동을 벌였습니다. 수련을 계속할 것인지 묻고 하지 않겠다고 하면 명단에서 삭제하고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가해진 괴롭힘을 포함해 모든 괴롭힘 사례를 명혜망에 폭로했고, 모든 주민센터 직원의 휴대폰 번호를 명혜망에 올려 해외 수련생들이 진상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요청하여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지 후보에도 박해를 받은 수련생이 거주하는 주민센터 직원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다른 공간의 사악을 크게 자극했습니다.

610 사무실 주임은 상부의 압박을 받아 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A, B 두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610 사무실 주임은 여성이었는데 이전에 제가 그녀에게 권선(勸善) 편지를 직접 써준 적이 있었고 다른 수련생과 함께 두 차례나 610 사무실로 그녀를 찾아가 진상을 알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식사를 대접한 적도 있었고 다른 수련생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그녀를 찾아갔기에 우리 지역에서는 수년간 파룬궁수련생이 납치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올 필요 없으며 제가 조만간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두 사람을 보내겠

다고 하며 만약 다른 사람이 찾아오면 번거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지 말라고 하며 조만간 밥이나 한 끼 먹자고 했지만 그녀가 거듭 고집하여 결국 오도록 했습니다.

저는 A와 B를 반갑게 집 안으로 맞아들이고 과일과 차를 대접했습니다. 여름이라 날씨가 몹시 더웠기에 선풍기를 틀어주고 오랜 친구를 대하듯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들도 매우 감동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들이 노트북을 켜자 A가 모일 모일에 파출소에서 전화를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답하며 정확히 어느 날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A가 인터넷에서 수집한 자료를 저에게 보여주려 하자 저는 보지 않겠다고 하며 그런 자료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 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협조하지 않는 것을 보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저는 이전에 A와 접촉한 적이 있었기에 친구처럼 그의 이름 뒷글자 두 개를 다정하게 부르며 “여러분은 이제 과거와 달라졌어요, 수련생들도 다들 그렇게 말하더군요”라고 했습니다. 그들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은 모두 선량하고 나쁜 사람이 아니니 앞으로 좋은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B가 “제가 선량해 보이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새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당신도 매우 선량합니다”라고 했고 그들은 모두 웃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선의 힘은 거대합니다! 사부님의 홍대한 자비에 감화돼 한 차례의 시련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인터넷 회사 직원 두 명이 두 차례 전화로 괴롭힘을 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610 사무실 주임이 한 대법제자의 집을 찾아가 인터넷에 올라온 자신에 관한 폭로

글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며 누가 썼는지 묻고 자신들의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박해를 단호히 부정했습니다. 저는 오직 사부님만이 저를 관여하시고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으므로 이 모든 것은 저와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4) 악의 우두머리를 폭로하다

2022년에 우리 지역의 파룬궁수련생 10여 명이 납치됐습니다. 오랫동안 이처럼 대규모로 납치된 적이 없었기에 저는 정법위 책임자가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당시는 마침 전염병 봉쇄 기간이었기에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과연 그러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관리가 기세를 올리느라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저는 정법위 우두머리의 정보를 메모하고 사진도 다운로드했습니다. 제 개인 휴대폰으로 검색한 것이었기에 안전을 위해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어조로 이 인물의 간략한 신상 정보를 폭로했습니다.

폭로 자료를 명혜망에 보내자마자 늘 함께 지내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악은 여러 방면의 두려운 마음을 틈타 빈틈을 파고들려 했습니다. 저는 ‘두려울 것이 무엇인가, 사부님께서 바로 제 곁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낮에는 괜찮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는 확실히 마음이 다소 불안해 조용히 법을 베껴 썼습니다. 사부님께서 늘 곁에서 보살피주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훨씬 평온해졌습니다.

며칠 후 명혜망 편집 수련생이 이 인물의 모든 정보를 제때 폭로했고 이는 사악을 강력하게 위협했습니다. 저는 국내외 수련생들이 진정으로 하나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새로 부임했던 정법위 우두머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1년쯤 지나 다른 곳으로

전보됐습니다.

5) 정체적인 구출로 공검법 인원을 구하다

몇 년 전 우리 지역에서 10명에 가까운 수련생이 납치됐습니다. 정체(整體)의 일원으로서 저에게는 수련생을 구출할 책임이 있었고 아울러 공검법(공안·검찰·법원) 인원들을 사악한 사슬에서 구출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박해받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해 사실을 제때 폭로하고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했습니다. 취보후심(取保候審, 보석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는 조치)을 받은 수련생을 도와 공검법에 보낼 편지를 편집했고 고소장과 관련 자료 등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을 도와 수련생이 겪은 박해에 관한 글을 작성하여 즉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저와 가족 수련생이 적극적으로 합심하여 새로운 진전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저를 찾아왔고 저는 즉시 정리하여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특히 납치된 수련생들이 정의로운 변호사를 선임했기에 1심과 2심 과정의 세부 사항을 제때 폭로함으로써 사악을 강력히 위협했고 많은 공검법 사법 인원이 진상을 알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출에 참여한 수련생들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인력과 물자,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때로는 심성 시험을 겪기도 했습니다. 한번은 한 수련생이 자료 정리를 도와달라고 하여 이틀 동안 정리한 후 차를 타고 전달해 주러 갔습니다. 거리가 멀어 왕복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도착하자 그녀는 다른 자료도 인쇄해야 하니 돌아가서 그것도 마저 인쇄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마음이 불편해지며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는 원망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발걸음을 해야 했고 가뜩이나 이틀 동안 법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길에서 버려야 할 시간이 얼마나 많을지, 이 사람은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스스로 수련할 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찾지 않고 남을 탓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바로 저의 수련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10명에 가까운 수련생들이 불법적인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국내외 수련생들의 공동 노력과 사부님의 헤아릴 수 없는 감내 및 자비로 업력이 줄어든 덕분에 당초 성(省) 중점 대형 사건으로 취급되던 이 일은 결국 10명에 가까운 수련생들이 각각 불법적으로 1년형, 1년 6개월형, 최대 2년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박해의 정도를 낮추고 사법계에 큰 충격을 준 결과였습니다.

맺음말

10여 년의 편집과 통신원 업무는 저를 반복해서 단련시켜 주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사부님의 보호 덕분에 늘 아슬아슬하게 위험을 벗어나 무사히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생에 사부님의 대법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큰 행운이자 행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사부님께서 제자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높은 은혜입니다! 제자는 이를 영원히 마음에 새기며 정진의 원천으로 삼겠습니다!

27년 반(反)박해의 일부 사회적 효과를 통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생각하다

글/ 필도(筆道)

[명혜망] 과거 27년 동안 파룬궁수련자가 해외에서 전개한 각종 활동(예를 들면 명혜망 구축, 미디어, 커뮤니티 활동, 퍼레이드, ‘9평’ 편집부 시리즈 서적, 선원 공연, 1인 미디어 설립, 박해 반대 입법 추진 등)은 국제 사회와 중국 국내 모두에 심원하고도 복잡한 영향을 미쳤다. 대략적으로 해외 주류사회가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시간 속에 더 잘 수련하고 더 효과적으로 일하며 이성적으로 지뢰를 피하는 데 긍정적인 참고 작용을 한다.

1. 국제 사회와 중국 사회에 미친 영향

일반 사회에서 2026년까지 공개된 정보와 관찰에 기초해 볼 때 많은 사람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원의 효과를 목격했다.

1) 해외 사회 효과:

‘변두리’에서 ‘체계화’로: 해외에서 파룬궁(法輪功)은 초기 수련 단체에서 강력한 자원 통합 능력과 사회 동원 능력을 갖춘 국제적 커뮤니티로 진화했다.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문화 전파와 브랜드 구축(선원 공연): 선원예술단은 가장 성공적인 ‘소프트 파워’ 명함이 됐다. 2026년은 선원 창립 20주년으로 규모는 8개 예술단이 전 세계에 동시 순회공연을 하며 5대륙 170여 개 도시를 아우르는 수준으로 확장됐다. 선원은 주류사

회에 ‘중국 전통문화’와 ‘공산주의 전후의 중국’이라는 대비되는 서사를 전파해 많은 서구 관객이 예술 형식을 통해 그들의 정치적 호소를 이해하게 했다.

- 미디어 매트릭스의 글로벌 확장: 수련자가 창립한 미디어(에포크타임스, NTD TV 등)는 다국어 글로벌 미디어 네트워크로 발전했다. 비록 정치적 입장과 보도 스타일 면에서 서구 주류 미디어의 논란과 쟁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으나 중국 내부 정세, 장기적출 의혹, 중국공산당(중공) 확장 반대 등 이슈를 전파하는 데 있어 무시할 수 없는 발언권을 갖추게 됐다.

- 법률 및 정치적 추진: 수년간의 로비 노력은 실질적인 입법 돌파구를 마련했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미국 하원에서 두 차례 통과된 ‘파룬궁 보호법’과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제재다. 이러한 입법 노력은 파룬궁 이슈가 인권 차원의 호소를 넘어 국가 전략과 법적 제재 차원으로 격상됐음을 의미한다.

2) 중국 사회에 미친 영향: 침투와 봉쇄 해제

중국 국내에서 잔혹한 탄압을 받고 중공이 해외 자유사회에 깊이 침투하고 초국가적 탄압을 벌이는 사실이 빈번히 폭로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련자들은 노력을 멈추지 않고 여전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을 지원하고 있다.

- 기술적 봉쇄 해제: 파룬궁수련자 기술팀이 개발한 인터넷 봉쇄 우회 소프트웨어(자유문, 무계 브라우저 등)는 중국 인터넷 생태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중국 국내 파룬궁수련자가 정보를 얻고 전달하기 편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일반 네티즌이 정보 봉쇄를 뚫는 도구를 제공해 많은 중국인이 진상을

아는 경로를 바꿨다.

- 삼퇴 운동과 중공 서사 해체: ‘9평 공산당’(한글판: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 시리즈 서적 발표를 통해 시작된 삼퇴(중공의 3가지 조직 탈퇴) 운동은 민간에서 중공 관변 서사와는 전혀 다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구축했고 중공의 본질 및 인류 전체와 관련된 더 많은 주제를 철저히 설명했다. 비록 공식 통계는 확인할 수 없으나 중국 내 파룬궁수련자의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중공 관변 이데올로기의 절대적 권위를 상당 부분 약화시켰으며 용감히 중공과 결별하려는 중국인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 명혜망의 기록 가치: 명혜망은 1차 박해사례 데이터베이스로서 국제 인권 기구와 각국 정부가 중국 인권 상황을 평가하는 데 방대한 미시적 증거를 제공했다. 이러한 축적과 미시적 데이터의 힘은 거대하다.

3) 대중의 인지

인권과 신앙 이슈가 아닐 때 대중은 에포크타임스, NTD TV 등 미디어를 파룬궁의 ‘대변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면에는 조직 구조의 모호성도 있고 대중 인지의 단순화 경향도 있다.

- 고도로 일치된 핵심 서사: 이 미디어들이 방대한 국제 뉴스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권, 장기적출 등 이슈에서는 보도 입장이 파룬궁 단체의 호소와 고도로 일치한다. 이러한 ‘일치된 보폭’은 외부에서 이들을 독립적인 제3자 미디어로 보기 어렵게 만든다.

- 인적 구성의 중복: 미디어의 경영진과 핵심 직원 대다수가 파

룬공수련자다. 이러한 신분의 중복으로 인해 미디어가 법적, 행정적으로는 독립된 비영리 기관일지라도 사회적 인식 차원에서는 ‘종교/정치 단체’라는 짙은 꼬리표가 붙게 된다.

- 홍보 자원의 통합: 선원 공연, 퍼레이드 등 활동에서 이 미디어들은 보도자일 뿐만 아니라 주요 홍보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심층적인 결합 운영은 ‘미디어와 수련 단체를 동일시하는’ 인상을 강화했다.

따라서 일부 대중에게 이 미디어들은 권위에 저항하고 중공 진상을 폭로하는 선봉으로 여겨지며 특히 일부 보수파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미디어들이 서구 내부의 당파 투쟁에 깊이 ‘참여’할 때 대중이 미디어의 정치적 입장에 갖는 불만이 파룬궁 단체 전체에 대한 견해로 옮겨가 단체의 수련 속성이 변질되고 있다는 등의 인식을 낳기도 한다.

여기서 몇 마디 덧붙이자면 대중의 인지 오류는 역사적, 현실적으로 필연적인 면이 있다. 왜 인지 오류라고 하는가? 전 세계 파룬궁수련자의 성격, 직업, 정치적 성향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수련자는 그저 조용히 일상적인 수련(연공, 법공부, 진상 알리기)을 할 뿐 미디어 운영이나 정치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며 에포크타임스나 NTD TV에 의해 대표될 수 없다.

사회심리학에는 ‘집단 라벨링’이라는 개념이 있다. 대중은 인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동적으로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집단을 가장 눈에 띄는 하나의 기호로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일부 대중이 에포크타임스와 NTD TV를 파룬궁 단체의 대표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라벨링의 결과다.

대중 인지의 이러한 ‘굵은 선’(라벨링)으로 인해 파룬궁수련자는 일종의 ‘브랜드 연대 책임’을 지게 됐다. 미디어가 잘하고 널리 전파되면 전체 수련자가 미디어 인지도 상승 혜택을 입지만, 미디어가 급진적 발언이나 당파 투쟁 개입으로 논란을 빚으면 신문도 보지 않고 정치에 관심 없는 일반 수련자조차 커뮤니티, 직장, 가정에서 무형의 압박이나 따가운 시선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에포크타임스와 NTD TV가 분별력을 잃은 듯한 행동을 할 때 대중이 에포크타임스와 NTD TV에 참여하지 않은 수련자들까지 구별 없이 ‘너희들’(모든 파룬궁수련자를 지칭)이라고 통칭하는 이유다.

대중은 ‘미디어 스타일’과 ‘개인 수양’ 사이의 학술적 경계에 관심이 없다. 많은 사람이 이런 관념을 갖고 있다. ‘당신이 숲속의 나무 한 그루라면 그 숲에 어떤 라벨이 붙을 때 그 어떤 나무도 스스로 결백을 증명하기 어렵다.’ 당초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중국인이 생각 없이 “우리 부서에 파룬궁수련자가 한 명 있는데 어떡어떡하다(신비주의적인 언행 등 지칭)”라고 말하며 파룬궁을 부정했다. 이 역시 비슷한 결합이다. ‘집단 라벨링’은 일반 사회에서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수련인이므로 우선 스스로 관념을 바꾸고 자신을 바르게 해야지 대중에게 모든 파룬궁수련자가 일부 파룬궁수련자가 운영하는 미디어에 의해 대표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4) 정부 관료의 인지

대중은 ‘라벨’을 보고 정부 관료는 ‘기능’을 본다. 그래서 정부 관료 층위에서는 명혜망, 에포크타임스/NTD TV와 파룬궁 단체(전체 파룬궁수련자)를 구분할 수 있다. 다만 그들은 때로 ‘전략

적 모호성'을 취하기도 한다.

정부 관료, 싱크탱크 연구원, 정보 분석가들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문적인 경로(국무부 인권 보고서, 비정부 기구의 조사 등)를 통해 명혜망과 에포크타임스/NTD TV의 차이를 정확히 식별한다.

관료들은 명혜망을 '1차 증언 소스'로 간주한다. 그들은 명혜망이 파룬궁이라는 신앙 단체의 내부 기록과 인권 데이터 수집에 더 집중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인권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재 명단을 만들 때 명혜망의 데이터를 인용한다.

관료들이 이를 구분할 수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때는 종종 선택적으로 '모호하게' 처리한다. 즉 인권을 이야기해야 할 때는 파룬궁 단체의 '피해자' 신분을 강조하면서도 파룬궁 수련자가 운영하는 미디어의 정치적 성향은 회피하는 식이다.

정부 관료들에게 명혜망과 에포크타임스의 본질적인 속성 차이는 다음과 같이 인식된다.

	명혜망	에포크타임스/NTD TV
주요 독자	파룬궁수련자, 인권 관찰자, 정부 관료	사회 대중, 서구 보수파 유권자, 정치 활동가
핵심 기능	내부 수련 교류, 박해 사례 기록	종합 뉴스 보도, 정치 평론, 문화 전파
사회적 역할	신앙 공동체의 역사 기록이자 가족이 주고받는 편지	주류 미디어 서사에 도전하는 독립 미디어
정치 참여도	신앙의 자유와 인권에 전념	매우 높음(서구 당파 정치와 대선에 깊이 개입)

2. 중공의 명혜망과 에포크타임스에 대한 규정 및 대응 방식

중공이 미디어 플랫폼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그 수단을 결정한다. 명혜망은 중공에 의해 파룬궁의 ‘지휘 중추’이자 ‘정신적 고향’으로 간주된다. 중국 내 파룬궁수련자가 지시를 얻고 ‘반(反)전향’ 경험을 교류하는 원천이다. 따라서 명혜망 타격의 중점은 ‘연락 차단(봉쇄 및 인신 박해)’이다.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에만 수천 명의 파룬궁수련자가 ‘정보 전파’를 이유로 체포됐으며 그중 명혜망 자료와 관련된 비율이 극히 높다. 명혜망 통계에 따르면(그리고 일부 인권 변호사들의 기록에 따르면) 중국 법원의 판결문에서 ‘명혜망 열람’이나 ‘명혜망 홍보물 배포’는 파룬궁 관련 사건에서 가장 흔한 유죄 증거다.

에포크타임스는 중공에 의해 국제 사회를 향한 ‘반공 선전 기구’로 간주되며 주로 서구 정계, 재계 및 다국어 사용자 사이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타격 중점은 ‘침투와 경제적 봉쇄’다. 메타는 중공과 관련된 수만 개의 계정을 여러 번 정리했는데 이 계정들의 특징 중 하나가 에포크타임스의 정치적 입장을 공격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게시하는 것이었다.

명혜망에 대해 중공은 중국 본토에서 철저히 사라지게 하려 한다. 에포크타임스에 대해 중공은 ‘극우’, ‘가짜 뉴스’ 또는 ‘음모론’이라는 라벨을 붙이고 서구 주류사회의 내부 갈등을 이용해 에포크타임스가 서구 주류사회에서 소외되도록 시도한다.

중공이 명혜망을 봉쇄하려고 하지만 전혀 해내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사상을 물리적으로 격리할 수 없으며 진리는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극력 은폐하려 할수록 종종 명혜망 정보 배후의 힘을 증명할 뿐이다. 게다가 인터넷 외에도 명혜망은 오랫동안 ‘자료점이 도처에서 꽃피다’(가정마다 자료점)를 지지하고 널리 알

리며 ‘접대점’ 전파(예를 들면 USB, CD, 종이 인쇄물 배포)를 채택했다. 이러한 전통적이고 탈중앙화된 진상 전파 모델은 오늘날 중국 기저층(특히 농촌 지역)에서 여전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며 그 어떤 전자 방화벽으로도 막을 수 없다.

기술적 측면에서 말하자면 현재 일부 인터넷 봉쇄 우회 소프트웨어는 암호화된 트래픽을 정상적인 웹 서핑이나 영상 통화로 위장해, 중공의 방화벽이 이를 정밀하게 식별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게 만든다.

인심 측면에서 말하자면 중공이 방화벽과 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천문학적인 ‘유지비’(일부 연도에는 국방 예산을 초과함)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흐름의 본능은 철저히 끊을 수 없었다. ‘더 이상 아무도 공산주의를 믿지 않는’ 중공 내부에서 상층부는 치밀하게 설계했는지 모르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 거대한 관료 시스템은 ‘위에는 정책이 있고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는 데 능숙하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경제 수준이 하락하고 국고 압박이 커지며 기저층 유지 자금이 축소되면서 이는 고압적인 감시에 피로감이 나타나게 했다. 갈수록 많은 사람이 비록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주장할지라도 주변에서 엽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상과 마주하면 피할 수 없이 생각하게 된다. ‘자신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가? 중공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가치가 있는가?’

3. 1인 미디어

정상급 1인 미디어 블로거는 개인적 매력이 뛰어나며 그들은 더 현대적이고 중산층의 미적 기준에 부합하는 언어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는 원래 ‘종교’ 라벨에 거부감을 느꼈던 일부 사람이 1인 미디어를 통해 파룬궁 단체의 핵심 서사를 받아들이게 했다.

현재의 디지털 전파 환경(인터넷 알고리즘과 소셜 미디어) 아래에서 대중의 인지는 이미 기관명을 보지 않고 ‘서사 논리’를 본다. 1인 미디어, 에포크타임스/NTD TV 및 명혜망은 외부의 눈에 더욱 복잡한 ‘인지망’으로 엮이고 있다. 대중에게 ‘라벨 결합’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더욱 견고해졌다.

명혜망의 엄숙함, 에포크타임스의 기관화에 비해 1인 미디어는 트래픽과 선명한 관점을 더욱 추구한다. 그러나 1인 미디어가 서구 내정, 지정학에 대해 극단적인 관점을 발표할 때 대중의 눈에 비친 이러한 ‘급진성’은 결합 효과를 통해 신속하게 명혜망이 대표하는 파룬궁 신앙 집단으로 역류하며, 심지어 어느 정도 명혜망의 전통적이고 몸을 낮추는 이미지를 ‘무력화’했다.

이러한 1인 미디어, 기관 미디어와 신앙 포털(명혜망)의 깊은 결합은 ‘책임 전가’ 문제를 가져왔다. 만약 한 1인 미디어 블로거가 실수를 하면 대중은 단지 ‘그 개인의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에포크타임스 무리가 또 어떡어떡하다’고 연상하며 심지어 ‘파룬궁수련자는 믿을 수 없다’는 논리적 비약으로까지 이어진다.

4. 대국적 관점과 훌륭한 대중 소통 의식

이 점들을 명확히 보아야만 우리는 더 많은 수련자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고방식에서 능동적으로 벗어나 심각하게 결합된 이 대중 인지 속에서 더욱 대국적인 관점을 갖고 자신의 긍정적인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다.

대국적 관점의 핵심은 명혜망이 전체 단체가 외부로 목소리를 내는 기저 데이터이자 도의적 고지임을 인식하는 데 있으며, 따라

서 명혜망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큰 나무에 비유하자면 명혜망은 뿌리, 기관 미디어는 줄기, 1인 미디어는 잎, 그리고 각 수련자는 토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전면의 미디어와 1인 미디어가 어떻게 ‘모습을 바꾸든’ 명혜망이 제공하는 진실한 박해 사례야말로 국제 사회의 존중과 입법을 얻어내는 핵심 원동력이다. 따라서 1인 미디어와 기관 미디어는 명혜망 소재를 인용할 때 일종의 숙연함과 엄격함을 유지해야 한다. 강렬한 감정적 선동을 띤 정치화된 언어로 그 엄숙한 고난을 포장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러한 장중함 자체가 바로 일종의 보호다.

인원수 측면에서 볼 때 수많은 수련자들이 미디어에 쉽게 ‘대표’되는 이유는 일반 수련자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 자주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미디어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일반 수련자는 사실 하나의 작고 미세한 ‘자료점’, ‘진상점’이며 자신이 언제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아는지, 그리고 회사, 이웃, 친구들이 자신의 언행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에 달려 있다.

이웃, 동료가 평화롭고 이성적이며 커뮤니티에 공헌하는 수련자를 볼 때 그 직관적인 인식은 미디어 라벨이 가져온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상쇄할 것이다. 이러한 ‘탈중앙화’의 긍정적인 작용은 그 어떤 1인 미디어의 트래픽으로도 대체할 수 없으며 ‘진선인(眞·善·忍)’ 보편적 가치가 개인에게 가져다준 진정한 변화를 사회에 직접 보여준다.

‘결합된’ 현실 아래에서 훌륭한 대중 소통 의식을 구축하는 것 또한 대국적 관점의 구현이다. 그 어떤 1인 미디어 블로거나 미

디어도 실수할 수 있으며 매번 실수는 한 차례 위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논란이 되는 발언이 나타났을 때 기관 미디어나 관련 대표가 ‘다른 목소리를 수용하되 신앙을 견지하고 중립을 유지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오히려 외부를 향해 우리의 포용력을 보여 줄 수 있고 나아가 ‘정치 도구화’ 등의 비난을 허사로 만들 수 있다. 솔직함과 포용은 모두 ‘진선인’에 대한 실천이며 급진성과 극단성은 감정적이고 마성적인 것으로 우리가 법을 실증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닦아 버려야 할 것들이다.

맺음말

만약 ‘진선인’을 햇빛, 공기, 물에 비유한다면 이렇듯 하늘이 내린 환경 속에서 ‘파룬궁수련자 집단’이라는 이 큰 나무를 아끼고 잘 가꾸는 것이 곧 우리 모든 대법제자(파룬궁수련자)의 법에 대한 실증이자 각자 사전(史前) 서약에 대한 이행이다.

이상은 개인의 현재 상태에서 본 현실에 대한 관찰 혹은 성찰로 모두 다 맞는 것은 아니다. 어떤 단락이나 단어는 일부 수련자의 심리적 방어 기제를 건드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전략 문제를 신앙 문제로 오해할 수도 있는 등이다. 사실 역할에 대한 민감함은 감정이지 이성의 반영이 아니다. 수련자 간에는 본래 배경, 역할, 겪은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 측면에서 다른 이해가 생길 수 있다. 우리의 성찰은 개선을 위한 것이지 성찰이 비판과 같은 것은 아니다. 이를 써서 삼가 수련자들의 참고로 제공한다.

‘자손의 앞날을 위해 전향한다’는 것은 누구를 해치는가?

글/ 도명(道明)

[명혜망] 중국공산당(중공)은 파룬궁수련자에게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른바 ‘전향’)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고문 전향’, ‘약물 전향’ 외에도 ‘가족에 전향’ 역시 중공이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이다.

예를 들어, 나이 든 부모가 자녀에게 무릎을 꿇게 해 자녀가 수련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거나, 자손의 진학이나 취업을 위협 수단으로 삼아 어르신에게 수련을 포기하도록 강요한다. 또한 배우자에게 압력을 가하고 결혼 생활을 위협 수단으로 삼아 아내나 남편에게 수련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 등이다.

중공 직원들이 자주 늘어놓는 억지 논리는 다음과 같다. “당신들 파룬궁수련자는 선(善)을 말하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파룬궁을 연마해서 가족까지 고통받게(중공에 의해 연좌제 박해를 받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향서’에 서명하면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무거운 압박 속에서도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많은 파룬궁수련자는 그 자리에서 이런 궤변을 꿰뚫어 보고, 관련 직원들에게 이성적으로 진상과 이치를 명확히 설명한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은 거대한 압력 아래 본의 아니게 타협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파룬궁수련자의 가족이 박해받는 것은 도대

체 누가 선하지 않은 것인지, 무엇이 진정한 선인지 토론해 보자. ‘자손의 앞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서명하고 전향한다’는 것이 과연 자손을 아끼는 것인가, 아니면 자손을 해치는 것인가?

가족이 연좌제 박해를 받는 것은 누구의 죄인가?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중국 현행 헌법 제36조에는 중국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누린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물론 합법이었다. 하물며 많은 중노년층과 불치병 환자들이 연공하는 것은 병을 제거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들이 연공하지 못하게 한다면 누가 그들에게 의료비를 내어줄 것인가?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겠는가?

파룬궁은 어떠한 정치적 요구도 없으며, 단지 헌법이 부여한 합법적인 수련 환경을 누릴 것을 요구할 뿐이다. 그러나 1999년 7월 이후 줄곧 중공의 방대한 국가 기구에 의해 비방과 탄압을 받았다. 그들이 평화롭게 주위 사람들에게 사실 진상을 알리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다.

그러므로 이 박해야말로 불법적이며, 선하지 않고 사악한 것이다. 이 점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고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똑히 볼 수 있다.

파룬궁이 박해받고 가족이 연좌제 박해를 받는 것은 중공의 죄이자 중공의 악이다. 이 점을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한다.

무엇이 진정한 선인가?

가족이 연좌제 박해를 받는 상황에 직면해서도 파룬궁수련자가 여전히 수련을 견지하고 신앙을 견지하는 것이 이기적이고 선하지 않은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유가(儒家)에서는 사람들에게 군자가 되라고 가르치며, 어떤 상황에서도 인의(仁義)를 견지해야 한다고 했다. 인의와 우효(愚孝, 맹목적인 순종)가 충돌할 때, 공자는 맹종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부모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을 때 자녀는 완곡하게 만류해 부모가 불의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

불가(佛家)에서는 진정한 선이란 어떠한 사심도 없는 보리심(菩提心)으로, 타인의 깨달음을 일깨워주고 사람이 인과를 명확히 알게 하며 미집(迷執)을 타파하게 해, 나아가 진정한 해탈과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도가(道家)의 관점에서 선행의 최고 경지는 천도(天道)에 순응하고 우주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이는 노자가 ‘도덕경(道德經)’에서 한 말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유불도(儒釋道)의 입장이든 대법 수련의 입장이든 막론하고, 사심이 없이 도와 의를 견지하며 ‘진선인(眞·善·忍)’에 부합하는 것만이 진정한 선이다.

덕을 중시하고 도의를 지키면 자손이 자애롭고 효도한다

자손의 앞날을 고려하고 후대에게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핵심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손에게 좋은 것인가 하는 점인데, 부모마다 도덕과 시비의 기준이 다르다.

현대인과 고대인을 비교해 보자. 현대인은 아이의 각종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아이가 똑똑해져서 장래에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를 희망한다. 반면 고대인은 선악에는 응보가 따른

다는 인과 법칙을 깊이 믿었으며, 덕행이야말로 사람이 세상에 몸을 세우고 살아가는 근본임을 깊이 알았다.

중국 고대에는 아이의 덕행 배양을 중시해 솔선수범하고 언행으로 가르치며, 자손이 훌륭한 가풍 속에서 알게 모르게 훈도를 받게 한 긍정적인 사례가 셀 수 없이 많다. 반면 부정적인 사례도 적지 않아 가히 타산지석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은 어떠한가? 각자의 선택은 마찬가지로 그와 가정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진정으로 자손을 위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손의 앞날을 생각해야 한다.

전형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한 과륜공수련자는 어머니로서 줄곧 자신의 언행으로 아들에게 은연중에 감화를 주었다. 아들은 어른에게 효도하고, 외할머니의 병수발을 들며,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남을 먼저 배려했다. 이후 이 어머니는 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전향’서에 서명하라는 핍박을 받았다. 경찰이 그녀의 아들에게 말했다. “어머니를 잘 지켜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장래 당신의 앞길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들이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받을 때도 좋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우리는 절대 서명하지 않을 거예요!” [1]

선생님은 이 청년을 높이 평가해 그에게 고급 민간 기업의 인턴십을 소개해 주었다. 기업의 사장 역시 그의 선량함과 재능을 칭찬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졸업하기도 전에 좋은 직장을 구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대법이 주신 것이고, 또 어머니가 쌓으신 덕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저의 최고의 본보기이십니다.”

자손에게 ‘전향’의 시범을 보이는 것은 복인가, 화인가?

솔선수범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압력 앞에서 서명하고 본의 아니게 ‘전향’하는 것은 바로 자손에게 부정적인 본보기를 세우는 것이다. 자녀는 장래에 원칙이 없고 도의보다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으며, 이는 인생의 미래에 화근을 심어놓는 것이다.

도교 경전 ‘태상감응편(太上感應篇)’에서는 ‘위세를 빌려 헐박하고, 선량한 이를 남몰래 해치며, 무고한 이에게 형벌을 가하고, 사람의 혈육을 이간질하며, 남의 가정을 파탄 내는 것’은 모두 죄악이며, ‘형벌과 재앙이 따르고, 길한 경사는 피하며, 흉성(凶星)이 재앙을 내리고, 제 명에 죽지 못한다’는 결과를 겪게 된다고 했다. 중공에 협조해 가족에 ‘전향’을 벌이는 자는 개인과 가정 모두 이러한 죄와 벌에 직면할 것이다. 단지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생활에 바빠 일부러 타인의 인과를 관찰하고 추적하며 종합하지 않을 뿐이다.

여기에 실례를 하나 들겠다. 한 여성 파룬궁수련자가 2015년에 박해 원흉 장쩌민(江澤民) 고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중공 경찰이 찾아와 공갈하고 회유하며 말했다. “만약 수련을 포기하지 않으면 손자들의 진학, 입대,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친척들도 그녀에게 압력을 가했다. 그녀는 아이의 앞날에 지장을 줄까 두려워 수련 포기를 선택했다. 그 후 그녀의 건강은 갈수록 악화됐고, 남편은 그녀를 돌보느라 장사를 할 수 없어 문을 닫고 휴업했다. 원래 자질이 괜찮았던 손자는 오염된 사회 속에서 흐리멍덩해져 유흥에 빠져들었다.[2]

그렇다면 타인에게 ‘전향’을 협박한 자는 어떻게 될까?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다. 리완중(李萬忠)은 충칭시 중현 출신으로, 2014년 구린현 당서기로 재직할 당시 법 집행 인력을 수련을 견지하는 파룬궁수련자 집에 보내 다음과 같이 위협하도록 지시했다. “전향하지 않고 서명하지 않으면 삼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군 입대, 진학, 취업 등을 일절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9월 1일, 리완중은 뇌물수수죄로 멌양시 중급법원에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고 벌금 100만 위안을 부과받았다. ‘형벌과 재앙이 따르고, 흥성이 재앙을 내린다’는 결과에 응한 것이다.[3]

네야오산(聶幺山)은 후베이성 잉청시 출신으로, 후베이성 잉청시 공안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며, 수련자의 자녀가 대학에 합격해도 다니지 못하게 하고 징병에 합격해도 입대하지 못하게 했다. 2019년 11월 5일, 네야오산은 후두암에 걸려 사망했는데, 당시 60세였다. 수명이 다하면 죽는다는 천리에 응한 것이다.[4]

맺음말

사람에게는 각자의 운명이 있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앞날을 좌우할 수는 없지만, ‘진선인’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따라 자손에게 도리를 설명하고 모범을 보일 수는 있다. 정념(正念)과 정신(正信)을 굳게 지키며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그들에게 잘못된 관념을 심어주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타인을 위하고 자손을 위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정위(淨語), ‘짐승의 표가 없는 아들’, 명혜망, 2026-03-28. 인용 날짜: 2026-04-21.

[2] 정신(正信), ‘선택이 다르면 얼음과 불의 두 세상이 된다’, 명혜망, 2023-06-18. 인용 날짜: 2026-04-21.

[3] ‘쓰촨 구린현 당서기 리완중, 응보를 받아 징역 11년형 선고’, 명혜망, 2024-05-23. 인용 날짜: 2026-04-21.

[4] ‘후베이성 잉청시 국보 대장 네야오산, 응보를 받아 사망’, 명혜망, 2019-12-19. 인용 날짜: 2026-04-21.

‘당문화(黨文化)’에 대해 말하다

글/ 선과(善果)

[명혜망] 수련자들 사이에서 우리는 때때로 ‘당문화’라는 말을 듣는다. 교류 중에 다른 사람의 ‘당문화’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당문화’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마치 하나의 ‘모자’처럼 쓰이게 된다. 이 모자는 자칫 맹렬하게 비판하는 도구가 되거나 표면적인 딱지로 흘러가기 쉽다. 사실 대법제자는 이미 법을 얻은 만큼 마음속이 어떻게 중국공산당(중공)과 같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미 ‘문화’라고 불리는 이상 문화적 관점에서 그 내막을 좀 더 이해한다면 그 거품들을 더 쉽게 걷어낼 수 있을 것이다. 물과 기름은 원래부터 서로 섞이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투쟁 문화의 핵심은 ‘적아(敵我) 구분’이다. 중공은 정치를 ‘적아 모순’으로 바라보며 이른바 ‘투쟁 철학’을 말한다. 사회적 모순을 정치화하고 이념적 견해차를 위협으로 간주하며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고 말한다. 중공은 내부에 이견이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수직화된 의사결정 구조를 사용하고 정치운동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조직망(당 지부)을 통해 하층까지 파고들어 개인의 생활에까지 침투한다. 반면 우리 수련인은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으니 이것만으로도 이미 우리와 중공의 거리는 멀리 벌어진 것이다. 물론 ‘적아 구분’의 방식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조건반사처럼 ‘비이성적 방어’ 반응이 나타난다. 즉 다른 의견을 들었을 때 잠재의식이 먼저 그것을 ‘공격’으로 정의해, 듣고 이해하는 상태가 아니라 빠르게 반격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해외 화교’라는 말의 내포가 크게 변했는데 그 안의 서로 다른 집단들은 언어 습관, 문화적 가치관, 정치·사회적 견해, 계층적 배경과 이민 동기 면에서 차이가 매우 크다. 그 배경에는 중국의 40년에 가까운 급격한 사회 변동, 교육과 미디어 환경의 차이, 그리고 시기별 이민자의 사회계층적 출신 등의 원인이 포함된다. 핵심적인 차이 가운데 하나는 최근 20년간의 중국 신이민자들이 ‘먼저 결론을 내리는’ 습관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훈련을 통해 형성된 인지 방식이다. 중국의 최근 20년간의 교육과 사회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내뱉으며 빠르게 편을 고르는 훈련을 받았다. 과정은 말하지 않고 결과만 말하며 세부 내용은 말하지 않고 입장만 말하며 논리와 사실 추론은 말하지 않고 결론만 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학교와 교사와 시험 모두 사고하는 과정을 장려하지 않고 ‘표준 답안’과 ‘정치적 올바름’을 암기하도록 강조한다. 토론식 교육이 적고 토론 문화가 보편화되지 않았으며 독립적 사고를 장려하지 않고 정보 출처를 독점한다. 이러한 환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심이 강하고 감정의 농도가 짙어지도록 만든다. 특히 신세대 중국인 이민자들은 고속 발전 시기의 중국에서 성장했고 중공의 20년에 가까운 민족주의와 강국 서사의 영향을 받아 국가 이미지와 국제 정치에 극도로 민감하며 정치적 태도가 초기 이민자들과 현저히 다르다. ‘무신론’과 ‘정글의 법칙’에서 주입된 가치관이 선입견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반면 해외 환경, 특히 북미, 대만, 동남아 화교 커뮤니티에서는 초기 이민자 대부분이 지식인 전문직 종사자 혹은 정치적 이유로

떠난 사람들로 냉전과 계엄령 또는 개혁 초기를 겪으며 성장했다. 가정과 교육에서 전통 유교 가치관(가족 위계 절제)을 더 강조하는 동시에 해외에서 점차 자유 민주 법치와 다문화적 관념을 흡수하며 정보 출처도 다양하다. 대만 홍콩과 초기 중국 이민자들은 정치 다원화와 사회 운동, 그리고 미디어 자유화를 경험했기에 정치 의제에 대한 토론 방식이 더 개방적이다. 동남아 화교는 대부분 100년 이상의 이민 역사를 갖고 있으며 식민 지배와 화교 배척 및 반공의 역사를 겪으며 독특한 ‘현지화된 화교’ 정체성을 형성했고 중국 본토 문화와의 거리가 더 크다. 오랫동안 다민족 사회에서 살아온 까닭에 사고방식이 더 실용적이고 상업을 중시하며 커뮤니티 네트워크와 민족 집단의 안정감을 강조한다.

투쟁 문화는 언어에 스며들어 이분법적 사고를 강화한다. 옳고 그름, 아군과 적군, 지지와 반대, 올바른 입장과 잘못된 입장처럼 말이다. 투쟁 문화는 ‘편 고르기’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언어 면에서 먼저 입장을 표명한 뒤 토론하고 먼저 입장을 드러낸 후 이유를 말하며, 상대방이 ‘우리 편’인지 먼저 판단한 후 ‘대책’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대책’의 ‘대(對)’는 대부분 ‘맞받아치기’와 ‘해결’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존중’, ‘경청’, ‘이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언어를 ‘교류’가 아닌 ‘선언’처럼 만들고 ‘서로 주고받는 교류’가 아닌 ‘일방적 출력/주입’이 되게 한다.

해외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며 이해하고 토론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감대에 이르지 못해도 괜찮으며 토론과 사고에는 모두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토론과 사고의 출발점과 목적은 경쟁이 아니고 발언권 쟁탈도 아

니며 더욱이 입장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람과 일에 대해 즉각 ‘결론을 내리고 정의를 내리는’ 신이민자를 만났을 때 기존 이민자들은 종종 상대방의 ‘토론을 거부하는’, ‘독단적인’,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에 의해 마음이 식어버리고 반면 본토 신이민자들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통 문화의 ‘수용’과 ‘중용’ 개념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수용’을 ‘겉으로만 친절히 척하는 것’(가식적인 친절, 건성으로 대함)과 혼동하는 것 같기도 하며,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은 당문화가 전통적인 미덕을 오명화한 것을 반영한다. 즉 겸손하게 양보하는 것을 나약함으로 보고 중용을 처세에 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사실 ‘진심 어린 포용’과 ‘전략적 걸치레’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심지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역지사지’의 내포를 담고 있다.

요컨대 관련 문화 현상을 명확히 파악해 ‘당문화’를 더 잘 인식하고 자신과 ‘당문화’ 사이의 거리를 벌리며 나아가 이성적 언행 습관에서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마치 기름과 물이 분리되는 것과 같다.



▲ ‘제49회 히로시마 플라워 페스티벌’이 5월 3일 개막했다. 일본 파룬궁수련자들은 ‘꽃 종합 퍼레이드’에 참가했으며 단상에서 중국 전통 악기를 연주하고 느리고 평온한 공법을 시연했다. 사람들은 파룬궁수련자들의 공연에 박수갈채를 보냈으며 잇달아 파룬궁(法輪功) 수련의 핵심 이념인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에 대한 찬성을 표했다. 동시에 적지 않은 관객이 중국공산당의 잔혹한 파룬궁 박해를 규탄했다. 주최 측 통계에 따르면 26만여 명의 관객이 비를 무릅쓰고 행사를 구경하러 왔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39명

■ 삼퇴 인원수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6121만 6797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